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내용 정리

기록은 2015년 12월14~16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문회 진행 내용을 정리한 문서임

제1일차 청문회기본정보

- ▶ 진행일자: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 ▶ 진행장소: 서울YWCA 4층 대강당
- ▶ 참가인원: 101명 (추가 인원 포함 120여명)
- ▶ 연대참가: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 ▶ 진행시간: 11시간 42분 (09:30~21:12, 청문회 개회, 종회 선언 기준)
- ▶ 특이사항:
 - ☞ 고엽제전우회 방청권 10개 받아감
 - ☞ 오전 8시 서울YWCA 건물 앞 고엽제전우회 집회 엄마부대 피케팅

1. 개회 : 12월14일 오전 09시 30분**2. 인사말 - 이석태 위원장****• 제1차 청문회 시작**

- 이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자 함. 그 이유는 보통의 해상사고일 수도 있었을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
- 청문회에서 해경을 비롯한 당시 구조세력이 탑승객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 했는지 확인,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는지, 또 부실한 구호로 제2차, 제3차 피해를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함

3.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단체 모두진술

전명선 위원장 (발언 전 영상 상영)

주요내용

- 416참사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한 까닭, 혹은 구조할 이유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 해경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므로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함
- 세월호 참사에서 과연 정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 더욱 무서운 것은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게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임
- 정부의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활동의지가 의심스러움. 최근 발견된 여당 추천위원들 지침문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음. 이 자리를 빌어 이 문건 역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
- 사흘간의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나가는 긴 여정의 시작점이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귀한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며 우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음
-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양심을 걸고 똑똑히 말하길 요구
- 청문회에 임하는 특조 위원과 직원들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요청

- 국민 여러분께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에 늘 함께 해 주시길 호소
- 아직까지 찾지 못한 아홉 명의 미수습자를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짐. 오늘 시작되는 청문회가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힘없는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서로를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두 손 모아 바랍니다

4. 재난 피해자 모두진술

송은영 (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피해자모임 발언)

전재영 (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협의회 발언)

주요내용

● 송은영(고양버스터미널화재참사 증상피해자)

- 2014년 5월 26일 발생한 고양버스터미널화재 증상자 가족 송은영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안타까움을 느꼈음
- 불길한 생각과 함께 연락되지 않는 남편을 응급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루아침에 잘못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날들이 시작됨
-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의 원인은 건물 지하 1층 CJ 푸드빌 공사 현장에서 용접 중 용접 작업자의 실수, 불이 나기 쉬운 샌드위치 판넬, 건물 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하지 않은 것들이 겹쳐 생긴 사고였으며, 비교적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을 알게 되었지만 사고 후 지금까지 저희가 겪는 고통은 사고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음
- 큰 상처를 가지고 또 그것을 계속 보고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과연 그것을 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겹다고 하는 분들 당신이라면 정말 지겨울지, 시간이 지났으니 잊을 수 있을지.. 더 이상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음. 그렇기 위해서도 세월호 사건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람
- 사고가 있더라도 그 사고 이후에 확실히 책임지고 그리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라며, 내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왜 이렇게 부상을 당해야만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누구보다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조사 진상규명 보상이 실현되기를 바람. 그것만이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될 것임

● **전재영(대구지하철화재참사희생자대책 위원회)**

- 최소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를 겪은 유족으로서 사고 당시 참사수습책임자인 대구시가 사고수습을 잘 해 줄 알았지만 책임자들은 빨리 수습을 끝내기 위해서 사고현장을 사고당일 물청소하고 그들이 버린 쓰레기더미에서 우리 유족이 시신을 찾게 하고 또 우리 돈으로 만든 분향소를 때려 부수려고 했고 아직도 공식적인 위령탑이 없음
- 이러한 엉터리사고수습을 한 이들이 아직도 반성 없이 공직에서 일하고 정치를 하고 있음. 12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
-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것은 본능을 감추고 살라는 것과 똑같으며 그것을 유족에게,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 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람. 책임자를 꼭 가려내고 이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에 교훈을 남겨주시기를 바람
- 진실규명과 사고의 책임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않는다면 다음 대형 참사의 기초를 여러분이 다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잘못된 자가 누군지를 제대로 가려내야 다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이런 행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함. 잘못했더라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또 다른 대형 참사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게 될 것임. 여러분이 진실규명을 제대로 하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밝힌다면 다음 대형 참사는 아주 멀리 있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세월호 침몰사고 신고접수 및 초동대응의 부적정성	
선행신문위원: 장완익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김서중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증 인: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추가신문위원: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이상철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참고인: 생존자 화물기사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장완익 위원

4·16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의 상황 담당관들을 상대로 세월호의 구조요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 했는지 여부와 구조하기를 위해 출동하였던 123정 512, 513헬기, 초계기 등 현장구조세력에게 세월호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구조세력으로부터 제대로 된 참사 현장상황 정보를 받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임

• 주요 질문 내용

- ▶ 8시 52분 최소 신고 접수 후 여러 대응상황이 있는데 9시 4분 세월호 선원 강혜성이 신고 접수한 것(선내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 계속하고 있다는 중요한 상황)에 대응상황이 없음. 강혜성의 신고접수사실이 전파되지 않았는지 질문
- ▶ 진도VTS가 당연히 세월호와 교신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목포에서는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목포상황실 담당자에게 교신한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

- ▶ 목포상황실채널 14번 비상채널이 16번인데 비상상황이었기 때문에 16번으로 교신 시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 **조형근(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주요 답변**

- ▶ 강혜성 신고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했고, 정확히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일단 대기하라고 들었음
- ▶ 상황실에서 60마일(120km)이상에서 잡음이 많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구조본부가 지역만 있는게 아니고 광역과 중앙도 있고 해서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 지시한 사실이 없음
- ▶ 진도VTS가 가깝기 때문에 구조(두)를 지시했고 인명을 최우선으로 구조할 것을 지시 통신기는 TRS를 이용할 것을 지시함
- ▶ 감사원 감사 때 진술과 다름이 있는 점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

- **유연식(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9시 8분 세월호에서 진도VTS로 이준석 선장이 '바다에 빠져야 할지 어찌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함. 이는 세월호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므로 진도 VTS가 제대로 보고 했는지, 서해청은 보고를 촉구하지 않았는지 질문
- ▶ 상황실 김민철 실장의 세월호 퇴선요구 보고에 대해 '상황실은 현장상황을 알 수 없으니 세월호 선장이 판단할 문제'라 했고 김실장이 소속경사 이상수에게 진도VTS에 선장이 판단하라고 전했는지 질문 (증인 예라고 답변함)
- ▶ 9시 25분경 증인이 진도 VTS와 교신현황을 알았다면(퇴선요구사실) 세월호 상태가 급한 것을 인식하고 진도VTS에 상황보고토록 직접 지시했어야 했던 것 아닌지, 또한 승객들을 탈출시키고 퇴선하면 구조하겠다 등을 세월호에 알려주라고 진도에 지시하고 여러 구조 세력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파해야 하는 건 아닌지 질문
- ▶ 진도VTS에 9시 25분까지 서해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상황은 전혀 없었고 유일하게 교신한 진도VTS와 세월호 상황에 대한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해청은 적절한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던 것 아니었는가 질문

- **유연식(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주요 답변**

- ▶ 김민철 목포상황실장에게 상황파악을 지시했고 다른 초동대처를 하다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묻지 않았으며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음. 보고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꼭 지시해야 하

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보고를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진술

- ▶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했고 그때 판단으로 퇴선구역에 다 집결된 상태에서 최종 결집만 묻는구나 판단, 준비된 상태에서 선장이 구조세력이 오는 것을 선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퇴선하라는 얘기였음. TRS정보, 헬기 정보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구조세력이 알고 있다고 판단 다시 지시 안함
- ▶ 서해청장의 지시상황은 못들었고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보고가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으로 지시하지 못했고 초기 상황에 다른업무(문의전화, 현장파악을 위해 OSC 지정 등)의 업무에 치중했다고 진술

• **조형근(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에 대한 주요질문**

- ▶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은 3009함 탑승(세월호로부터 64마일 밖)하고 있으면서 목포상황실에 세월호와 교신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묻자 알아서 조치하였을 것으로 별도 지시를 안한 것으로 답변. 이를 아는지 질문
- ▶ 3009함의 목포서장도, 또 목포상황실도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거고, 또 진도VTS가 세월호와 교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신문
- ▶ 세월호와 교신이 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러 출동한 123정에게 세월호와 교신하여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라고 증인이 지시한 적 있는지 질문
- ▶ 증인은 TRS로 세월호와 123정이 교신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해청에서 지시할 줄 알고 목포상황청에서는 별도의 지시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인지 신문
- ▶ 작년 6월 11일 검찰 조사 시 증인은 123정에게 이동시 연락한 바는 없고, 지시는 본청과 지방청 있으니 총지휘는 본청이 해야 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지 질문

• **조형근(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주요답변**

- ▶ 상황접수시 상황지시가 중요, 목포 상황실은 기관들에 전화하기 바쁘고, 상황보고서를 작성 전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진술
- ▶ 매뉴얼에 의해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진술
- ▶ 처음에 전화로 하고 TRS로 여러 번 날렸다고 진술
- ▶ 어느 부서든지 지시를 하면 된다고 답변
- ▶ 중앙구조본부가 상급기관이고 저희(목포)보다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접수하고 우리보다 상급기관이 지휘하면 효율적이라는 개인생각이었음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에게 주요 질문**

- ▶ 본청 상황실에서 세월호와 직접교신을 시도한 적 있는지(증인 없다고 대답) 목포서로 서해청에 세월호 교신을 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는지 질문
- ▶ 당시 여인태 과장은 세월호 상황을 물었고, 세월호가 좌현 50도로 기울었고 구명벌도 펼쳐져있지 않으며 탈출한 승객이 없어, 승객들이 모든 배안에서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여인태 과장에게 다시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증인 보고받았다함)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
- ▶ 증인이 김석균 해경청장에 이런 보고를 했는지?(같이 있었다고 대답) 청장이 따로 지시한 것이 있는지 질문
- ▶ 그 당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치는 퇴선조치 아니겠습니까? 퇴선조치를 취했는지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주요 답변**

- ▶ 현장에서 구조활동은 지역구조 본부로 중심으로 이루어짐
- ▶ 통신망의 혼선이 오고 그런 부분에서 지휘체계를 혼란스러워 진다고 답변
- ▶ 중앙구조본부에서 상황 공유하고 9시 45분 출동함정에 구명벌 즉각 투하하고 46분 직접 승선해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계속했다고 답변
- ▶ 전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지시를 한 것이라 진술
- ▶ 9시 40분 직접 승선해 현장 숙지를 하라. 직접 승객들에게 라이프 자켓을 채워서 뛰어 내리라는 지시가 계속해서 나간 것임

○ **장완익 위원** : 제가 이 시간에 느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청, 서해청, 목포상황실은 세월호의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123정, 511, 512, 513 헬기, 703 초계기 등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세력에게 세월호 상황을 즉시 전파했어야 하며, 그랬으면 승객들이 갑판에 나와 대기 중인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지 등을 알고서 도착 즉시 퇴선 방송을 하여 선내에 진입하여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을 것임
- 유일하게 세월호와 교신하였던 진도VTS를 통하여 곧 갑판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
- 그런데 위 3개 부서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려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 이 3개 부서에서는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적이 없음. 앞으로 세월호 특조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선행신문 - 권영빈 위원

TRS

중심으로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에게 주요 질문 내용**
 - ▶ 해경은 참사 당시 TRS 녹취록을 만듦. 이것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검찰청에 제출하고 국회에도 제출했는데, 증인 혹은 녹취록을 누가 제출했는지 알고 있는지 질문
 - ▶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
 - ▶ 해경청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주요답변**
 - ▶ 녹취록 작성 경위 정확히 파악못한다 대답
 - ▶ 본청 정보통신과 담당 직원으로 진술
 - ▶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
- **유연식(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에 대한 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 ▶ 감사원에서 조사받을 때 TRS 통신녹음파일을 풀어쓴 녹취록이 기재된 표, 음성 및 문자 지시사항 분석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증인 보여줬다고 진술)
 - ▶ 서해청에 누가 만들고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한 적이 있는가(증인 확인 못했다고 진술) 백남근 경위가 이것을 어디서 받았는지 아는지(증인 모른다 대답) TRS 녹취록 본적이 있는지(본적 있다고 대답)
 - ▶ 언제 어디서 본것인지 질문(증인 가지고 있다고 대답), 어떻게 받았는지 누구한테 받았는지 질문(상황실에 자료가 들어와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있음이라고 대답)

○권영빈 위원 :

• TRS 녹취록 준비화면

- TRS 녹취록이라는 게 여러 개가 돌아다님. 조사 주체인 감사원, 검찰청, 그리고 국회 등에 여러 개 돌아다니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함
- TRS라는 것은 통합지휘통신망을 구축해서 모든 상황을 지휘, 청취, 가능한 것임. 이 교신 녹취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녹취록이고 하나는 표의 형태
- 1, 2를 비교해보면 09시 18분에 상황내용이 없음. 450명임을 확인하고 세월호와 교신 안 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임. 도대체 이 녹취록을 공적기관에 제출하면서 왜 18분을 뺐는지?
- 09시 27분에 대한 내용도 다중교신이라고 한줄로 처리된 반면, 다른 것은 내용이 많음. 중요한 내용으로 B511 헬기가 '대부분 선상과 배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고를 함
- 제출 주체에 따라서 작성방법이 달라지고 중요내용이 달라지거나 빠져 있음. 회의할 때 녹취록을 기준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니까 녹취록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고 수정되지 못하도록 관리되어야 함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에게 주요 질문 내용

- ▶ 녹취록을 만들 때 여러 개를 만든 건지? 아니면 출력할 때 알아서 뽑은 것인지 질문
- ▶ 해경이 국회 제출한 녹취록이 있고 또한 녹음 파일도 같이 제출했지만 국회에 제출한 녹취록에도 내용이 빠져 있음 그것을 아는지 질문
- ▶ 내용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추가된 아니고 삭제된 것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이든 나중에든 이게 다 완성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출할 때 뭔가 내용이 빠진 상태의 것이 제출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는지 질문
- ▶ 여러 가지 형태의 TRS 녹취록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검찰, 수사 기관에서 문제제기하거나 지적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지 질문(없다고 대답) 여러 형태로 만들어져 외부기관에 간 것은 해경 지휘부 승인하에 된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접근, 뽑은 것인지 질문
- ▶ 녹취록을 만들었으니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아닌가? 이런 녹취록 원본을 아는지?(증인 모른다고 대답) 본청 국장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본청에 연락해 TRS 녹취록 원본을 우리 특조위에 보내달라 요구(증인 수락)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주요답변**

- ▶ 해경 직원이 작성을 했고 제출 당시에 원본, 음성 파일을 같이 제출. 2,3개가 되는 것은 듣지 못했던 부분, 추가되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된 것, 나중에 음성파일을 제출했기 때문에 음성 파일 자체는 변동이 없고 들으면서 조금 더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 들을 보완되는 쪽으로 추가된 것으로 앎
- ▶ 음성파일 자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조작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증인 아웃라인만 안다고 함
- ▶ 증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은 모른다 대답

○**권영빈 위원**

- 감사원과 검찰청과 같이 조사받고 수사받는 곳에 정확한 판본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현장 구조 세력에게 현재 구조 선박 상황을 인지하고 제대로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못한 사실, 적절한 지시도 내리지 못했던 사실을 은폐하려고 이런 개개인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TRS 녹취록을 만들어서 국가 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청에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됨

● **권영빈위원 유연식 증인에게 요구**

- 작년 4·16당시에 서해청에 VHF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특조위에 제공해주기 바람

● **권영빈위원 이춘재 증인에게 요구**

- 최초 작성된 것, 5월말, 마지막 최종적으로 더 이상 수정되지 않은 TRS 녹취록을 시기와 작성주체로 나누어 세 개의 판본을 제공해주기 바람

선행신문 - 김서중 위원

과정에서 현장구조세력들이 과연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물어볼 예정

- **생존 화물기사 참고인 진술 : 참고인은 2014년 4월16일 당시 화물기사로 탈출하기 직전 화상을 입음**

(참고인이 로비에 있던 동영상 시청)

- ▶ 참고인은 탈출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탈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
- 배 기울기가 수면 1~2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두려울 수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다고 진술
- 3층 로비, 안쪽 방에있던 승객들은 탈출 지시만 있으면 충분히 탈출 가능. 헬기 소리가 먼저 들리고 해경소리도 들렸는데 사람을 구하려는 조치는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음
- 해경관리자분이 매뉴얼대로 했다고 했는데 구조매뉴얼이 무엇인지 참고인이 질문함
- 한달에 14번 정도 배를 타고 다녔기에 복원력을 믿고 있었는데, 해수면과 50센치 정도밖에 안남은 상황 탈출해야 할 것 같다고 소리치려고 나가는 와중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행동을 빠르게 못함
- 여학생 3명 남학생 두명이 못 뛰어 내리고 있어 먼저 뛰어내리고 구명보트로 가서 구명보트를 데리고 다시 그쪽으로 감
- 와류가 심한 상황은 아니었다. 와류가 심했다면 여기 지금 없을 것이라 증언
- 고무단정에 타고 있던 해경으로부터 퇴선해라 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음
- 123정이 선수에 배를 대고 구한 것은 선원밖에 없음. 선미로 가면 지하에서 5층까지 올라오는 사다리계단이 있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면 가지 못할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다 배를 대서 일반승객들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을 하면 가슴 칠 일임
- 작업복을 입고 있는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고 누군가 물었을 때 '본인이 선원이다' 라는 말도 함. 해경이 선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함
- 참고인인 탈출한 당시는 41분경으로 참고인이 느끼기에 60도 정도라고 기울기를 생각함

보충신문 - 장완익 위원

- 유연식 증인에게 주요 질문내용
 - ▶ 진도VTS센터장은 9시 6분부터 세월호가 교신이 끊긴 9시 37분까지 전화로 주로 서해청과 5~6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25분 것 말고 다른 보고가 없었는가?
 - ▶ 증인이 하지 않았더라도 상황실 직원이 진도VTS와 통화한 두분의 내용을 123정, 헬기 다른 유관기관에 전달했는지 질문
 - ▶ 9시 27분 헬기 도착 30분 123정 도착했는데 헬기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없는가 질문 보고를 들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
 - ▶ 123정이 TRS로 현장보고를 한 것이 9시 44분, 25분에서 44분까지 20분이 비는데 44분 이후에 지시한 것 아닌지 질문

- **유연식 증인 주요답변**

- ▶ 9시 삼십 몇분에 김형식 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음. 센터장은 '자기가 한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음
- ▶ 서해청 내용이 VHF로 교신되고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구조세력이 듣고 있었고 TRS로 계속 교신하니까 모든 구조세력이 청취하고 있음. 하나하나 불러서는 전달이 안됨
- ▶ TRS 교신이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 나와있는 사람이 없고 '중간에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경비함정에 이송가능한지 물었음
- ▶ 25분경 지금도 교신 가능한가 물었고 그것에 답변은 없었으며 계류하여 구조가능한지도 물었음

보충신문 - 이호증 위원

- **유연식 증인에게 주요 질문내용**

- ▶ 서해청은 광역구조본부로서 지역구조본부를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진도 VTS가 계속 보고할 거라 생각하기 보다, 상급자로서 서해청이 책임과 권한이 있다면 보고를 안하느냐 얘기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지 질문
- ▶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필요. 진도VTS가 다 알아서 할거면 상황실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 확인하고 재촉하는 감독기관으로서 할 일. 세월호와 교신안된다만큼 중요정보가 또 있는가 질문

- **유연식 증인 주요답변**

- ▶ 기본적으로 일선부서에서 상황이 변하면 상황보고를 한다고 증인 답변
- ▶ 세월호와 교신하라고 여기저기 물었음

- **이춘재 증인에게 주요 질문 내용**

- ▶ 본청 경비과장 여인태가 123정장과 전화(9시37분), 정장에게 TRS로 전화하라고 함. TRS보고는 압축한 표현을 사용. '승객이 안에 있는데 못나오고 있다 승선시켜 안전유도하겠다'는 요지, 전화내용은 구체적임. '지금도착 사람이 하나도 안보임'. 본청상황실 첫 번째 질문 '명단작성 안됐습니까?' 본청의 관심은 보고. 이에 대한 답변 요구
- ▶ 9시 20분즈음 YTN 보도이후 여러기관 문의 청와대(29군), 안행부 등등 파악된 정보가 없으므로 123정장에게 전화, 첫질문이 나오는거 아닌가 질문

- **이춘재 증인 주요 답변**

- ▶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함
- ▶ 통상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게 되면 구조자, 사망자 파악함. 통화를 해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정회 12시 43분

13시 30분부터 오전 증인신문을 일부 마치지 못한 것을 속개

보충신문 - 신현호 위원

- **이춘재 증인에게 주요 질문 내용**

- ▶ 대법원 판결의 결과 8시 57분경 신고부터 9시 45분~50분까지 퇴선명령이 안내려졌다는 것임. 본청에서 세월호와 직접교신하지 않은 것, 지역에서 일단 현장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지역구조가 원칙이라 말함. 돌이켜볼 때 누가 퇴선명령을 해야한다고 보는가 질문
- ▶ 선장이 퇴선명령을 하는 것이 맞았다면 당시 현장에 경비정과 헬리콥터가 있을 때 누가 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

- **이춘재 증인 주요 답변**

- ▶ 현장상황을 볼때 배의 구조 침몰 현장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장. 초기 선장이 퇴선명령을 빨리 실시했더라면 훨씬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다고 생각
- ▶ OSC 현장지휘자 지정,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하는게 맞음. 따라서 123정장이 맞고 거기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 **유연식 증인에게 주요 질문내용**

- ▶ 9시 6분경 VHF를 통해 상황보고를 받고도 진도 VTS에 지시하지 않은 것, 다른 업무가 많아서 상황파악하기가 어려웠으며 선장이 알아서 현장파악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 선장에게 진도VTS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알리려는 시도를 해야 하지 않았는가 질문

- **유연식 증인 주요 답변 내용**

- ▶ VTS에서 어선동원 상선 이동 방송을 했고 동일채널로 교신했기 때문에 선장도 청취가 되었으면 구조세력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을 것임

- **조형곤 증인에게 주요 질문내용**

- ▶ 김문홍서장이 세월호와 교신하라고 했는데 당시 보고서 작성하느라 바빠 직접통화하지 못하고, 상황이 이정도면 본청이든 서해청이든 높은 곳에서 할 줄 알았다 진술. 보고서 보다 선조치 후 보고서 쓰는 것이 매뉴얼 아닌지 질문
- ▶ 123정장에게 승선하라 했는지 질문

- **조형곤 증인 주요 답변 내용**

- ▶ 상황1보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 7분정도 소요. 각 정부기관 해군 등에 보내야 하는 것. 다른 일보다 보고서를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에 했던 이야기임.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장 등 승무원이 상황실에 신고를 안했는가 의문. 보고서를 안 쓸수도 없는 문제. 상황전파를 해야 하니 육안으로 파악 안됨. 60마일(120킬로미터) 저희가 판단해서 뛰어내리라고 할 상황은 아님
- ▶ 상황1보에 최우선 구조, 문서로는 그렇게 다했고, TRS에도 꼭 그 내용은 아니지만.. 정확한 정보와 사람의 판단이 필요

보충신문 - 이상철 위원

- **이춘재 증인에게 주요 질문내용**

- ▶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다면 아직 상황판단이나 탈출능력이 미약하므로 이런 사람들 빨리 탈출시키거나 구조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본청 차원에서 당시 특별히 당부한 게 있는가 질문

- **이춘재 증인 주요 답변 내용**

- ▶ 9시 30분 전후 청해진에 물어본 후 학생들 탑승사실 알았으며 누가 되었든 빨리 구조하기 위해 최대한 세력을 동원하는데 집중, 그래서 빨리 도착한 게 30분만에 123정임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8시 57분경 목포서 해경상황실장 이병윤으로부터 함정용 휴대전화로 세월호 침몰연락 받고 9시 3분경 VHF 채널 16번 비상채널(박성삼)로 호출. 진도 VTS 관제구역내 채널 67번으로 교신시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는 67번으로 들어났었음(증인 : 통신팀장이 교신하고 있었다고 대답)
- ▶ 9시 18분 현장지휘관으로서 다시 세월호와 교신 시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시도했는가를 질문(증인 :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
- ▶ 세월호 1등 항해사 신정훈이 16번으로 9시 26분과 28분 123정 호출 응답하지 않음(당시 못들었다고 대답)
- ▶ 박성삼에게 세월호와 교신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혹은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조타실 안에 있어서 옆에서 교신 사실을 알았다고 증인 진술
- ▶ 작년 8월 검찰조사시 사고 지시를 받고 승조원에게 인력배치표를 만들어 임무부여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 그 전에는 인력배치표를 짜고 이것으로 임부부여 구조업무 수행한 것으로 허위 주장한 사실이 있음

• **김종인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부장) 주요 질문 및 답변 내용**

- ▶ 123정 부장으로 사고 출동지시이후 인력배치표에 의한 임무를 부여받거나 박성삼에게 세월호와 교신하라고 (정장이)지시한 것을 본적이 있는가 질문(증인 없다고 답변)
- ▶ 장비를 준비하라는 일반적인 준비 외에 개별적으로 승조원들이 (정장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는가 질문(123정장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못받았었다고 진술)

• **이형래, 박상욱(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승조원) 주요 질문 및 답변 내용**

- ▶ 출동 후 정장이나 부장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있는지(둘다 구체적인 지시는 없다고 대답함. 장비준비 정도.. 박상욱은 훈련을 통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따라 행동했다고 답변)
- ▶ 승객이 350->450명이라는 것을 인지(9시 18분)하고 승조원들에게 수정 알려준 적이 있는지(두 증인 정확히는 몰랐다고 답변, 잘 모르겠다고 답변. 김경일은 방송을 계속했다고 답변)

• **김종인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부장) 주요 질문 및 답변 내용**

- ▶ SSB 교신을 10여분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선들과 교신 성공한 적은 몇 번이고 당시 소

형어선들이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파수 변경은 생각 못했는지 질문

- ▶ 증인 : 2114번으로 교신하고 적극 협조해달라 일방적으로 했고 선박끼리 이용하는 주파수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
- ▶ 30분동안 거의 대부분 조타실에 있으면서 신정훈이 9시 18분 요청할 때 들었는지?(못 들었다고 대답) 현장지휘함으로서 세월호와 교신하는 것 또는 TRS로 본청 서해청 목포 등이 교신하는 TRS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선만 모으면 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인지(증인 침묵)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9시 28분경 세월호 육안으로 보인다는 보고 후 유연식이 세월호와 교신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은 이유(증인 수신을 못했다고 대답). 조타실에 증인 말고 누가 있었는가?(3~4명으로 대답) 모두 다 못들었다는 것인지(모두 못들었다고 김경일 대답)
- ▶ 박성삼이나 다른 승조원에게 세월호 교신을 지시하고 9시 30분경 2마일 도착까지 30분간 교신했다면 성공했고 선장과 교신을 했더라면 교신을 유지하고 세월호의 급박한 상태를 알지 않았을까(지시 생각을 못하고 있었고, 되었더라면 선장과 교신을 유지하고 상태를 알았을 것이라 대답)
- ▶ 가정이지만, 교신이 되었다면 대피조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을지 질문(증인 교신이 되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 대답) 적어도 선내방송 대신 선원들 안내에 따라 갑판으로 나오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겠는지 질문(그 관계는 여기서 말 못하겠다고 대답)
- ▶ 교신이 되었다면 증인은 TRS를 통해 본청, 서해청, 목포에 보고하고 전파를 받은 곳은 더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겠죠?(예라 대답)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주요질문 및 답변내용**

- ▶ 작년 5월30일 감사원조사과정에서 목포상황실, 123정이 세월호와 교신하리라 믿고 증인은 교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3009함에서 세월호까지 64마일 떨어져 있어 VHF 통달거리가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세월호 교신하지 않음으로 진술.(맞다고 함) 감사관이 5월22일 유사거리에서 체크 결과 감도가 양호했다고 하면서 교신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는가 지적하지 않았는가(지적했다고 진술)
- ▶ 증인은 목포상황실이나 123정에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은 것아닌가?(증인 예라고 대답)
- ▶ 통상적으로 VHF 통달거리가 25~30마일이라는 것이 인식되어 있음. 그렇다면 사고현장으로 오는 도중 할 수 있지 않았는가?(오는 도중 미처 생각하지 못함)

- ▶ 결국 123정이 세월호와 교실했어야 하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가?(진도 VTS 운영절차에 관제구역내 출동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함)
- ▶ 3009함에서 9시 3분 보고를 받고 123정이 9시 44분 TRS로 현장보고할 때까지 세월호 상황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를 질문
- ▶ 김문홍증인 답변 : 승객들이 못나오고 있다는 것은 44분 인지했지만, 9분경 3009함장에게 구조세력 총동원 대기, 전속 가동, 구조품 준비 등 지시(일반적 지시라고 장완익 위원 말함)
- ▶ 전반적인 지휘통제가 증인의 업무 아닌가? 지역본부장으로 세월호 승객구조하는 것을 실제로는 포기 방임한 것이 아닌가(절대 아니라고 증인 대답)

•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주요질문 내용**

- ▶ 9시 18분경 세월호와 123정장이 교신이 안된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가 하였으며 그 이후 어떤 지시를 했는가?
- ▶ 세월호와 교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별도로 교신을 취하든지
- ▶ 세월호 목포, 3009함 123정 모두 교신이 안되었잖습니까 당시 몰랐던 것 아닌가?

•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주요답변 내용**

- ▶ 상황실에 20여명이 임무 수행.. 김민철 상황실장 보고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진도VTS와 세월호가 교신이 되는지 알아봤고 교신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음
- ▶ 목포에 위치. VHF로는 안되고 통상적으로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지방청과 중복된 통신장애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가급적 통신라인을 한선으로 함. (한선(단일한선)에 대해 장완익 위원이 묻자) 진도 VTS가될 수 있다고 답변
- ▶ 몰랐던 것은 아니고 응답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 있다고 대답

• **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주요질문 내용**

- ▶ 본청 목포상황실, 123정, 진도 VTS든 세월호와 교신이 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구조세력이 세월호와 교신을 시도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거나 시도도 안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그 당시 알았는가?
- ▶ 세월호와 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못한것인가

- **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주요답변 내용**

- ▶ 그 당시 구조세력간의 교신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상황이 아니었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 좀더 잘 되었으면 하는 성찰이 남음
- ▶ 그 당시 구조세력을 빨리 출동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런 것을 챙기기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증인 답변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123정이 세월호로 가는 30분의 시간동안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고 상황을 모르니 승조원들에게 개별구조업무를 하지 않은채 오로지 안전운항에만 신경쓰면서 9시 30분 도착했다는 것인가?
- ▶ 김경일 증인 답변 : 교신은 시도를 했으나 안되었고, 시스템상 자기 임무가 있다 그래서 그날 임무배치를 안하고 구조를 못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신문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9시 37분경 해경본청과 함정 휴대전화로 약 2분 22초간 통화(여인태과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123정이 현장에 9시 35분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TRS에 현장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123정과 통화 했다고 진술) '전방 1마일 해상 세월호 50도 기울어져 있고 구명벌도 펼쳐져 있지 않고 갑판이나 해상으로 탈출한 승객이 없고 승객이 모두 배안이 있다'라고 보고. 42분경 TRS로 '현재 승객이 안에 있는데 못나가고 있음 일단 이곳 직원을 시켜 안전 유도하겠다' 보고했는지(김경일 그렇다고 함)

- **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여인태 과장이 이러한 사실을 이춘재 국장에게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 보고를 들었는지(후에 들었다고 진술)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김석균 주요질문 및 답변내용**

- ▶ 여인태 과장이 증인에게 보고했을 때 '김석균 청장도 같이 들었다' 오전 신문에 진술 맞는가?

- ▶ 이춘재 : 사무실이 나란히 붙어있다. 상황대책반과 지휘실.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휘. 여인태 과장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도 전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오전에 증인은 같이 들었다고 했음. 지금은 같이 들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김석균 증인 그때 듣지 못했다는 취지인가(김석균 : 기억하는 바로는 바로 앞에서 듣지 못했다)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증인은 세월호 상황을 TRS로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보고는 9시 30분경 없다(증인 : 난청지역이라 될 때 있고 안될 때도 있음. 기록은 없음이라 진술) 어떤 보고 내용이 있는가?(세월호 현상태에 대한 보고라고 진술) TRS로 보고된 것은 9시 44분. 14분 지나 보고된 것임(증인 : 했으나 그 시기 것은 내용이 다 빠져있다고 진술)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문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현장도착후 9시 35분 김종인 부장에게 퇴선방송하라고 방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주장하다 하지 않았음을 자백(자백했다고 시인) 퇴선방송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 방송만 했으면 많이 구출되었을 것 아닌가
- ▶ 김경일 증인 답변 : 고무단정이 가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함. 이제 우리가 왔으니 나오겠다 생각하고 상황이 급박하여 퇴선방송 못하였다고 진술
- ▶ 퇴선방송을 하지 못한 것은 30분동안 상황을 모르고 도착하여 승객상황을 모르고 한 것. 이것은 결국 세월호와 교신이 되지 않아 그렇게 된 것. 교신했으면 제일먼저 취할 조치가 퇴선방송 아닌지(세월호와 교신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
- ▶ 현장지휘관으로 9시 10여분에 임명되었는데 선내 퇴선방송을 할지 말지 그것도 결정 못한 것. 상황준비를 안하고 간 것 아닌가?
- ▶ 증인 답변 : 도착하자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퇴선방송을 못하고 인명구조한 것이라 진술
- ▶ 퇴선방송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김종인 부장이 있었는가(없었다고 진술) 감사원이나 검찰조사 초기 퇴선방송을 했다고 한 이유는?(김종인 : 유리창 깨고 할 때 빨리 나오라고 한 것을 퇴선방송이라 얘기했기 때문) 그것은 퇴선방송이 아니라고 장완익 위원

이 지적

- ▶ 현장 도착시 헬기 2대가 구조하는 것을 보았는가(도착해서 보았다고 대답) 123정에는 헬기가 이동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은가?(파악할 수 있는데 관제시스템 확대해서 관제하고 있어 감지하지 못했다고 감사원 조사시 진술)
- ▶ 세월호 도착전 구조헬기가 TRS로 교신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듣지 못하고 도착할 무렵 헬기를 보고 호출, 교신 안됨) 9시 32분 TRS로 호출한 사실이 있는데 한번만 하고 마친 이유(응답이 없어 포기)
- ▶ 현장지휘관으로서 구조헬기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데 교신하지도 못하고 지휘하지도 못함 교신하기 위해 노력했는가(응답이 안되 못함) 헬기에서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더 쉬웠을 텐데 내려와서 선내방송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 지시했다면?(당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감사원 조사에서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
- ▶ 고무단정을 9시 35분 내려 2명(박은성, 김용기)를 보내 처음 구조. 당시 123정에는 해경 열명과 의경 3명 열세명이 있었음. 도착해서 승객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많은 승조원을 승선하여 일부는 선내진입 퇴선을 유도하고 나머지 승조원은 갑판으로 나온 승객을 구조하는 역할을 나누고 하려면 승조원을 많이 태워 보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승객구조를 위해 두명만 태웠다고 진술)선원을 태우고 123정으로 돌아왔다?(그때는 몰랐다고 진술) 선내진입조차 못했던 것?(그 당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 진술)
- ▶ 9시 45분 123정으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구조(조타실에 사람이 있다고 해서 기울기 60~70도일 때 뒤에서 구조한 것이라 진술) 승객, 탈출한 사람을 구했다고 하면 구조한 사람 중 선장이나 선원이 있다고 확인해야 하는데 선원여부 확인했는가?(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 구조한 사람 중에 선원임을 알 수 있는 복장이 있었는데 누구도 선원과 함께 구조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인가?(그 상황에 생각하지 못했다)

• **이형래(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승조원)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김경일 정장으로부터 세월호에 올라가서 구명벌을 터뜨리고 선내진입 지시 받은 적이 있는가(없다). 선수쪽 구명벌을 터뜨려 그쪽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정장에게 그런 지시를 얘기하고 45분경 세월호에 올라 구명벌을 터뜨렸는데, 이때 창문이나 난간쪽 승객을 본 적이 있는지(조타실 부근에 승객들 말고 확인 못함)
- ▶ 선수로 가는 것보다 선내진입이 맞지 않은가?(고무단정이 뒤쪽 구조 시작, 123정이 계류를 못하니 조타실쪽에도 사람이 나올수 있겠다 생각하고 세월호 좌측에 구명벌을 터뜨리

고 승객퇴선 유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보고하고 올라간 것이라 진술)

- ▶ 승객을 못봤다고 했지만 객실로 들어가 대비하라고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당시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들어갈 수 있었으면 들어갈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진술)

3시 20분 정회

- 오후 청문회 속개(3시 40분)

선행신문 - 김진 위원

123정 구조활동 중 감사원 및 검찰 조사관계에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들 중심으로 신문

(동영상 시청-123정 핸드폰, 헬기, 비행기 찍은 영상 : 9월11일과 18일 인터넷방송 공개 선원과 123정 해경이 검은 물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영상)

- ▶ 조형곤, 유연식, 김문홍, 김석균, 이형래, 박상욱 증인에게 본적이 있는가 물음(이에 박상욱만 한번 봤다고 진술)
- **조형곤(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언론에 보도된 후 기자가 목포해양경찰서에 이 영상에 나온 물체를 대해 알고 있느냐는 전화를 함. 목포서에서는 이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함. 이야기를 못들었는가?(다른 곳으로 발령 나 못들었다고 얘기함) 누구한테 확인해야 하는지(홍보실장을 거론함)
- **박상욱(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승조원) 주요 질문 내용 및 답변내용**
 - ▶ 이 동영상에서 선원 조준기와 검은 물체와 함께 바다에 뛰어드는 행동을 한 경찰관이 박상욱인지 신문(박상욱 맞다고 함) 증인이 같이 타지 않고 선내에 머무르다가 조준기와 함께 한 이유는(123정이 조류에 밀린 것 같다고 함) 조준기와 함께 남아있으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바가 있는가(없다고 하고 승객인 줄 알고 구조했다고 진술)

박상욱의 대답으로 장내 소란. 참관 중이던 생존 피해자 자해, 부인 기절 등으로 잠시

정회(15시 53분)

속개 16시 10분

- ▶ 조타실로부터 검은 물체와 세월호의 구멍조끼가 같이 흘러내려왔던 것을 알고 있는지(박상욱 모른다고 진술) 허리를 굽힌 적이 있는 모습에 대해 신문(박한결의 다리를 발판에 올려주기 위해 한 행동이라 진술) 꿇어 앉았을 때 조타실에서 내려온 물건, 구멍조끼 못보았나(못보았다 진술) 증인이 그 구멍조끼로 갈아입는 장면있음. 구멍조끼를 언제 봤는가(조준기에게 자신의 구멍조끼를 벗어주고 나중에 그 구멍조끼를 입은 것이라 진술)
- ▶ 박한결의 다리를 올려준 다음에 123정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은?(수신호인거 같은데 타격운행을 하는 123정에게 전방 3미터 접근시 3,2,1 신호를 준다고 진술) 손 전체를 흔들고 그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동영상 질문(물건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
- ▶ 펜더를 잡고 고무단정을 기다린 적이 있는지(기억이 안남) 같이 떨어진 검은색 물체를 펜더 틈에다 넣어두는 영상이 나오 기억 안나는가?(기억나지 않는다) 선원과 떨어지기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대화 나누지 않았다) 영상 뒷부분을 보면 펜더에 검은 물체를 넣어두고 있다가 고무단정에 온다면 올라갈 때 증인 두사람만 올라가는게 아니고 그 펜더를 가지고 올라감 그 물건을 가지고 올라간 이유는?(증인은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다고 진술)
- ▶ 조준기 선원과 바다에 펜더를 붙잡고 구멍조끼를 입고 있다가 고무단정에 올라간 것은 기억하는가(예라고 진술) 고무단정에 올라갈 때 증인하고 남자 선원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같이 올라가지 않았는가?(기억이 없다고 대답) 구멍조끼가 풀어헤쳐져 있는 것을 지적(앞이 잘 안잠겨져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 노란색 펜더는 작은 물건이 아니고 그 물건에 매달려 있던 물건 기억이 나지 않는가 재차 물음(안난다고 대답) 사람만, 인명구조가 급해 사람만 123정으로 옮긴 것이냐 신문(경황이 없어 그런 것 같다고 진술)
- ▶ 목포 홍보실이나 다른 관리자로부터 그 물건에 대해 확인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가?(홍보실에 연락이 와서 답변해준 적이 있다고 함) 홍보실 누구?(홍보담당관이라 대답하다가 조만용 경사라 대답)

동영상 뒷부분 시청

- ▶ 왼손에 까만색 물체를 증인이 들고 있는게 보이는데 검은색 물체 맞는가?(모자라 대답. 123정 갈때까지 가지고 올라갔으며 이후 모자를 벗고 구조작업을 했다고 함) 정확히 기억하느냐에 질문에(방금 봐서 알겠다고 대답) 노란펜더는?(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
- ▶ 같이 뛰어든 사람은 저 한사람(조준기)이냐고 말하면서 항소심 재판에서 '승객인줄 알았다'고 증인 진술을 상기시킴. 선원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지 않은가(조타실에서 전부 나온 점, 작업복 착용 등) 조준기도 승객인줄 안 것인가?(승객인줄 알았다고 진술) 구조 도중 대화를 하지 않는가(아무와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

박상욱 증인 답변중에 학생들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는 진술을 하여 가족들 분노. 곧 사과함

추가 신문 - 권영빈 위원

- **김경일 증인(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123정은 100톤짜리 p정으로 450명을 다 어떻게 구할건지, 그리고 배밖으로 나와있을 거라 했지만 부상 등 배안에 승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경지휘부가 배안에 남아있는 한사람도 빼놓지 말고 대책을 세워 잘 구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기억이 없다고 대답)
 - ▶ 사고현장에 갔을 때 OSC로 지정해놓고 모든 것을 증인 혼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다는 것인가(그럴 의도는 아닐 것이라도 진술) 의도가 아니라 뭐라고 지시한 것이 있는지(당시 없었다고 진술)
 - ▶ 100톤짜리 p정으로 450명을 구하려 한것이냐?(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것이 어선 동원이었다고 진술) 어선이 없지 않았냐, 어선이 오면 어떻게 구하려고 한 것인가(처음에는 없었고 구조하다보면 어선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고 진술) 아무 생각없이 계획없이 하다보면 어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지(일단 어선들에게 구조요청 했기 때문에 올거라고 생각하고 구조)

추가 신문 - 최일숙 위원

- **김문홍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현장지휘자로서 어떤 지휘를 했는지? 8시 52분부터 10시 17분 사이 현장의 상황에 맞는 지휘를 증인은 어떻게 했는지?(9시 3분 사고를 인지하고 10분 출발할 때 309함장에게 가용인력, 구조용품 등을 지시) 지시를 내리려면 세월호 현황(기본승선인원 배에 대한 정보)는 파악했는지
- ▶ 김문홍 답변 : 9시 14분 IP전하기를 들고 목포상황실장에게 총소집했는지, 해군에 통보했는가 123정에 얘기해서 직원들 올라가서 구명벌 터뜨려라, 선장을 찾아 판단해서 퇴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진술

- **김경일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고무단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선내진입을 해서 승객들을 탈출시켜야 했는데 2명을 보낸 것, 그 이유?(거기까지 생각못했다고 진술) 나머지 사람들은?(구조준비를 함) 왜 선미로 먼저 가지 않았는지?(처음에 사람이 안보여 선수쪽에 내려 체크했다 진술)
- ▶ 여객선 침몰시 구조경험이 있는지 대비 훈련이 있었는지?(처음 경험한 것이고 훈련이 있는데 세월호처럼 전복이 아니고 표류하면서 구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진술)

추가 신문 - 김진 위원

- **박상욱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배에 올라가 있을때 선내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방송 들은 적 있는가(못들었다) 구조활동 후 오후에 무얼 했는지?(승객들 팽목항 이송 업무) 복귀시점(사고 나고 2~3시간) 복귀후 김경일정장과 통화한 사실은(승객을 잘 인도했고 그런 내용으로 통화)

오후 전반부 청문회 종결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현장구조상황 및 지휘체계(2)	
선행신문위원: 김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김서중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증인: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조형곤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서 123 정장) 김종인 (목포해양경찰서 123 부장) 박상욱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이형래 (목포해양경찰서 123 승조원) 이재두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 김재전 (항공단 B-512호 기장) 고영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13호 기장)	
추가신문위원: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최일숙 (지원 소위원회 위원)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주요내용		

선행신문 - 권영빈 위원

- **김재전 증인(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12호 기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현장도착시간 9시 45분. 배밖으로 승객들이 얼마나 보였는가?(10명 정도 표류) 첫 구조인원을 5명 서거차도에 후송, 10분정도 걸리는데 세월호 주변 둘라에이스호라든지 일단 가까운데다 빨리 내려놓고 구조활동을 더할 수 없었는가?(화물선이 현장보다 더 가까웠던 것이 아니고 서거차도가 더 가까웠음)
- **고영주 증인(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13호 기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9시 32분경 도착했을시 해상 표류자는 보였는가?(부유물이 많았고 1호기가 빠지는 상황에서 바로 구조에 들어감) 도착시 조난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없었다고 진술)

• **김재전 증인(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12호 기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9시 10분경 정식 출동명령을 받은게 아니고 최재형(영?) 조종사로부터 상황전파를 받았는가(맞다고 진술) 정식출동지시는(목포항공 기장하고 교신)
- ▶ B511기장이 증인한테 출동명령을 내릴수 있는 지휘에 있는가(함정에 탑재했을때는 함정 지휘, 항공에 있을때는 항공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진술) 3009함 이륙시는 아무런 지휘를 안받았다는 것인가?(항공대 전화를 받고 출발)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세월호 상황에 대해 전파받은 것이 있는가(703호 기장과 511 양해철 기장 교신하는 것을 듣고 물어 보기도 하고 몇시 도착한다고 교신)
- ▶ 123정이 OSC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했는가?(나중에 본청에 가서 알았다고 진술) 현장에 갔을 때 123정이 OSC라는 것을 해경 어딘가로부터 전달받았는가(교신은 부기장에게 이양, 부기장이 증인에게 전달한 바는 없다고 진술) 증인은 OSC와 본인이 어떻게 통신하는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있는가(무선교신은 부기장에게 모두 이양했으므로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 부기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당시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진술)
- ▶ 도착 45분부터 전복시간인 10시 30분까지 123정이나 목포상황실로부터 상황전파, 이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부기장한테 전달받은 것은 몇가지 없다고 진술)
- ▶ 부기장이 703호(CN-235)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얘기하던가(항공충돌이 없게끔, 항공기를 분리해주게끔 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

• **고영주 증인(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B-513호 기장)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내용**

- ▶ 제주지방청 제주항공단 소속으로 다른 관할구역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할 때 상황전파 보고는?(관할구역에서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음. 제주로 상황을 전파하고 추가적인 전력 요청)
- ▶ 카모프가 출항한 것 말고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구조활동하는 동안에 관할구역 지휘 부인 목포서, OSC인 123정, 서해청, 본청으로부터 상황보고, 지시,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것이 있는가?(없다고 진술)

• **두 증인에게**

- ▶ 항공구조사가 항공기를 이탈할 때 증인들 항공구조사에 특별한내용을 전달한 것이 있는가?
- ▶ 고영주 답변 : 두 번째로 도착, 중간으로 가면서 해상구조자가 있을때는 해상으로 구조를

먼저하고 해상구조자가 없을때는 선내로 내려라 안전하게 구조에 임하라 지시, 선미에 내리라고 함)

- ▶ 고영주에게 : 아까 표류자가 거의 없다고 했음. 그러면 항공사가 내려줄 때 항공구조사를 배안에 들어가라고 하든지 배안에 사람을 나오라고 하든지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앞 항공기와도 무선이 안되고 제주와만 무전교신이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
- ▶ 김재전 증인 : B512가 도착했을 때 해상으로 바로 투입, 표류자가 있었기 때문 선체 측면에는 다른 항공기가 있어 해상에 먼저 투입
- ▶ 증인들이 구조활동을 하면서 항공구조사에게 선내진입을 하라던가 퇴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할수 있었으면 훨씬 더 구조작업이 잘되었을거 같은데 생각은?
- ▶ 고영주 : 항공구조사를 선내에 내려주면서 무전통신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렇게 못한 점이 있다고 진술
- ▶ 헬기에 방송장비가 없어 제주해경소속 카모프 505호기를 보내달라 요청한 것인 사실인지?(고영주 : 방송장비가 없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력을 요청)
- ▶ 사고현장 출동시 방송장비 등 구조구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가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는가(두증인 없다) 지시받지 않더라도 대형 선박 조난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개인장착은 무리 : 김재전)
- ▶ 해양경찰항공운영규칙을 아는가(김재전 : 안다) 규칙 27조 수색구조에 참가하는 항공기는 생존자에게 정보전달이 가능한 통신장비 설치 등을 하여 투하하여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그런 장비가 항공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 함 : 김재전) 장비가 없어 못 지키는 것 아닌가(장비가 없어 못지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그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음 : 김재전)

선행신문 - 김석균 위원

• 김석균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고정형 항공기 CN235는 성능과 장비가 훌륭한 비행기로 35명 탑승이 가능한, 구조한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구명벌도 5개 보유). 당시 CN235, 즉 B703호의 임무는(김석균 : 구조작업에 투여..) 정확히 703이 부여받은 임무를 모르는 것인가(세세한 항공세력 하나하나에 어떠한 임무가 부여되었는지 잘모르겠고, 구조세력인

항공기 전원 다 출동하는 체제)

• **이춘재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CN235, 즉 B703호의 임무는(현장에 B701 헬리콥터가 현장에 투입, 후속조치로 CN235호가 현장으로 이동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 현장에 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가?(기억이 정확치 않다) 그 상황에 있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인가(예)

• **김재전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703호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지만 왜 거기 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

• **김서중 위원**

- ▶ 이 비행기는 공군으로부터 항공통제역할을 맡으라는 임무부여, 항공기간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임무 부여 당사자들은 몰랐다는 얘기
- ▶ 9시 26분 현장 도착, 현장을 123정보보다 빠르게 정확히 알수 있던 항공기 12시 33분 제주공항으로 가기 전까지 현장 촬영과 매우 기본적인 상황 파악 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 항공통제를 위해 교신도 제대로 안되었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도 내린바 없음
- ▶ 703호기는 임무중에 구조구난의 임무가 있음 그런데 구조구난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김석균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B703은 고정형 항공기로서 주 임무가 정찰임무, 구조임무에 있어서는 헬기보다 어려운 항공기 사람이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헬기처럼 구조사가 내려가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가 아니라고 진술
- ▶ B703 기장 강두성 기장이 조사 진술한 바에 따르면 선내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구조작업을 자기 판단에 의해 할것이라고 표현(김석균 : 앞의 말 다시함) 항공구조사가 동승하고 구명별도 있고 35명이 최대인원. 구조는 할 수 없어도 구난을 위한 장비나 사람을 내려보낼수 있는 상황이었음 거기까지는 인정하는가(예 : 김석균)
- ▶ 이춘재 부연설명 : 서해해역 순시가 목적이므로 조종사와 정비사만 탑승하고 있었음
- ▶ 관측, 순시 통제가 주임무였다 할지라도 당시 상황을 잘 알았다면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임.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CN-235기에 없었다는 것
- ▶ 항공통제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본청상황실 통화기록에 비행기를 띄우면 통제가 안되고.. 등을 주고받고 123정장과 교신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위에서 찍고 있었지

밑의 상황을 전혀 알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조종사가 스스로 판단할 정보가 없었다는 것 전혀 지휘와 관련된 지시가 없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 김석균 :항공기가 먼저 상황을 전파해주는 그런 역할, 703은 첫 번째 임무가 항공기 통제, 거기에 있는 상황을 신속히 상황실로 전파를 해줘 상황실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게 또 하나의 임무 그런데 구조사를 내리고 구조할 수 있는 항공기는 아님
- ▶ 703을 통해 현장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은 게 어떤 것인가
- ▶ 김석균 : 공역통제 지휘를 달라는 교신을 들었음

• **김재전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교신이 제대로 되었는가?(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 513하고도 안 이루어졌다고 진술)

• **김석균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703은 좋은 촬영기록장치를 갖고있 어 정확하게 밑을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항공기. 지휘부에서 어떤 정보를 보내라고 요청하고 받은 바가 있는지
- ▶ 김석균 : 모르겠다
- ▶ 현장의 많은 정보를 모아서 결국 정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김석균 : 결국 상황실 역할이다)

• **이춘재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종합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부분적인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 항공과장도 있었지만 정확히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기억 못함 확인해 봐야 함
- ▶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유용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활용한 전달통로는 어떻게 되는가
- ▶ 123정이 도착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함
- ▶ B703기가 떠있었지만 밑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전파하지 못했고 교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또는 적절한 판단을 할수 있는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

정회 17시 46분

속개 18시 07분

선행신문 - 권영빈 위원

- **이재두(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3009함은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하면서 현장지휘관 OSC로 지정, 그 역할이 무엇인가 (사고현장에 동원된 함정들 운영 및 안전관리 운영기관 업무조정) 증인이 지휘관으로 지명된 것인가?(세 번째로 받았음.)
 - ▶ 대형사고에 있어 지역구조본부장이나 광역구조본부장이 법에 의해 지정, 이들과 OSC 지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3009함에는 목포서장이 타고 있는데 12시에 OSC로 지정 그럼 12시부터 사고현장 최고지휘관은 누구인가(이미 서장이 승선한 상태. 지휘권이 넘어간 상태라고 진술, 상위자로 전환) 지역구조본부장이 현장에 있는 OSC 현장지휘관에게 지휘를 하는 관계인가?(서장이 TRS로..) 3
 - ▶ 009함 박경채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OSC로 지정하려면 최소 천톤급 함정은 되어야 하고 123정은 애초 역할 불가능이라고 진술(함정규모와 상관없이 제일먼저 가는 배가 OSC로 지정되어야 맞다고 진술) 그랬을 때, OSC로 지정된다고 해서 구조 조정 작업이 다 잘될 것이라 볼 수 없는 것 현실적으로?(그 점은 차이가 있다고 진술)
- **김문홍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123정이 OSC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몰랐다고 답변) 언제 알았는가(가는 과정에서 3009함 직원들을 통해, 정확히 누군지는 기억이 안남) 123정이 OSC로 듣기 전까지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현장지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 ▶ 123정이 출발했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가(TRS로) 증인관할 배인데 이메이트, TRS 외 보고한 사람은 없는가(보고 못들었다) 검찰청 조사에서 27분 이전에는 이메이트, 메신저 상황주시, 27분 지시. 지시 내용은 무엇인가? 3009 전원 준비, 목포 상황실장 이병윤에게 7가지 지시. 지시내용 이행했나(검찰에서 이병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감사원에서는 일반적 지시여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
- **이재두(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1목포서장으로부터 9시부터 10시사이 3009함 내에서 지시받은 것이 있는가 (예) 무엇인가? 일곱가지 사항 함내 방송 전속 이동, 구조장비 준지, 각부서에서 특수분담표에 의해 구조장비 준비, 도착예정시간인 11시 반 넘어 사고현장 가면 세월호 승객이 어떤 상태로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3009함에서 구조준비를 했는데 사고현장에 가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가면서 계속 지시했고요 123정장하고 계속 통화를 했다고 진술)

- ▶ 전속으로 가는데 세월호는 가라앉고 끝나버렸는데 도착하면 늦었음. 그러면 현장에 도착해 있는 123정과 구조세력에게 어떻게 지시해야겠다 이런것에 대해 목포서장이 증인이랑 얘기 나눈 것이 있는지(TRS 녹취록에 나와있음. 123정장 도착하면 최대한 직원들 빨리 보내고 반대편으로 나오게 해서 뛰어내리게 하라라고 진술)

- **김경일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현장 도착하기 전 목포서장이 증인한테 지시한게 있는가 통화한게 있는가?(기억이 없다고 진술)

- **이재두(목포해양경찰서 3009함 함장)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9시30분 123정이 도착하기 전에 목포서장이 123정에게 직접 지시했다 그렇게 말한건지?(IP전화로 한 것으로 TRS 녹취록에 있을 것이다 3자이기 때문에 기억을..) 제3자인데 정확치도 않은 것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러면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목포서장이 123정한테 지휘를 몇 번 했나(급박한 상황이라 기억이..)

선행신문 - 김진 위원

- **유연식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9해양수색구조매뉴얼에 두척 이상의 함정 또는 항공기가 수색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임무조정관이 있지 않은가 참사 당시 SMC가 서해경찰청장 맞나?
- ▶ 증인 : 검찰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최고지휘관이 서해청장인거 같은데 임무유사성으로 보면 구조조정관인 경비과장이 맞는 것 같고 답변을 정확히 못드리겠다
- ▶ OSC 임명권이나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에 대한 조정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OSC 지정과 관련해서 서해청장은 본인이 지시했다고 진술. 당시에 지시를 받았나 본인이 알아서 했는가(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로 도착하는 배를 OSC로 지정하는 통상 상황처리지침에 따라 그렇게 조치. 문자 이메일로 해서 123정장이 OSC를 말아라 문자로.
- ▶ 그런데 123정은 문자시스템이 없음. 증인이 올린 문자는 123정을 OSC로 지정한다 올렸는데(목포서에서 현장 지휘하는 부서에 바로 TRS로 지정하고 본청에도 참고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진술)

- ▶ 9시 13분, 16분경에 문자정보시스템에 올린 OSC 지정문자가 목포경찰서에 의해 123정에 전달되었는지 TRS나 함정전화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확인한 바가 있는가(확인 못함)
- ▶ 서해청 총지휘함이 3009함이 맞는지, 원래대로라면 광역구조본부장이 서해청장이 3009함을 타서 구조현장을 지휘했어야 한는데 그게 아닌가(제가 판단할 상황은 아니고 청장이 해야 함. 개념정리 필요.지역구조본부장이나 광역구조본부장의 현장직이라는 것을 현장을 가야되냐 아니면 상황실에 먼저 임명해서 초동조치를 먼저 하나 이건 전체적인 지휘고...

- **김진 위원**

- ▶ 상황실에 있어서 지휘만 잘했어도 문제가 없는거고, 배에서도 못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

- **유연식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참사 당시 서해청 특공대와 군산서 122 구조대 출동상황을 김수현 청장과 증인이 인식하고 있는가(알고 있었다). 특공대 출동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음 그런데 출동지시가 아니라 출동대기 지시였음
- ▶ 위원 : 9시 35분경 이동수단을 처음 알아보기 시작하고 헬기 지원을 받아 떠나기 시작한 것은 10시 25분, 11시 35분 사고현장 도착 알고 있는가(예)
- ▶ 군산서 122 출동상황을 확인한 것은 언제인가(정확히 기억 안남), 실제 언제 출발(항공기로 출발한 것은 알고 있음. 사십 몇분인가) 실제 도착은 11시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도착 증인이 처음 지시한 것은 언제인지? 혹은 안했습니까?(상황실 오자마자 포괄적으로 지시했다고 진술)
- ▶ 현장상황 크기로서 실제 배 톤수 승객수를 언제 알았나(9시 5분) 현장 크기를 알았다면 특공대, 가까운 지방서 구조대를 보내는 것이 서해청의 존재이유.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상황실에게 인근서 전파지시를 하면 함정 및 구조대를 파견. 누가 해야 하는가? 군산 9시 40분 이동. 6개 지방서의 구조대가 다른 관할의 사고구조를 하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서해청이 하는게 맞다).
- ▶ 헬기 511, 512는 서해청 소속으로서 세월호 탑승인원과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을 전파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목포서와 서해청, TRS 52번을 청취한 구조세력은 충분히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
- ▶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충분한 구조세력이 동원이 안되었다는데 있으며 서해청이 책

임지고 동원했어야 할 특공대, 군산서 구조대가 늦게 출발 가고있는 구조세력은 헬기와 123정밖에 없다는데 있음

- ▶ TRS를 보면 9시 48분 김수현 청장이 등장하기 전 김수현 청장의 지시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다 청장은 9시 5분부터 48분까지 무엇을 지시했는가?(9시 5분 입장, 증인이 상황 보고, 그 이후 직접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
- ▶ 9시 17분 서해청상황실과 목포항공대간 통화에서 서해청 항공팀장이 구조하러 이륙해 있는 502헬기를 청장이 찾는다는 이유로 서해청 패드장으로 돌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알고 있는지?(증인 정확히 모름) 실제 청장은 11시 30분경 구조현장에서 이탈한 511헬기로 이륙하여 11시 49분 현장 도착알고 있나(증인 정확히 모름)
- ▶ 청장이 사건발생 후 TRS 처음 지시는 9시 48분경, 이때는 123정이 잠시후 침몰한다는 보고 있던 다음에 “단정을 내려 ...” 이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경위 아는 바 있는가(모르겠다고 함)
- ▶ 10시 5분 ‘123정 직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고 여객선에 올라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란다’ 지시 기억나나(TRS에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음) 10시 8분 70도기 울어졌다고 보고 하니 침몰 안되도록 배수작업을 실시하라, 배를 세우는 좋은 방법, 검토의 발언을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억나는가?(목포서장하고 TRS 교신한 걸로 암)
- ▶ 세월호 상황이 빨리 전파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구조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증인도 동의, 네 번의 초기정보(09시04분 강혜성 신고, 9시 18분 진도 VTS교신 승객 선내있는 것, 항공기 511헬기가 도착 9시 27분 배안에 있는 것 같다, 네 번째 9시 37분 123정장이 본청 경비과장과 전화) 모두 적절한 시점에서 전파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조실패 증인과 서해청 상황실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고 배가 많이 넘어간 상황을 언제인지 했는가?
- ▶ TRS 교신을 하면서 헬기하고 교신할 때 인지. 실내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배 안의 밖에 있다고 생각. 경비정에서 하나씩 타고 있다 이런식으로 보고되니까 계속 배에서 구조되는 걸로.. 그렇다면 9시 27분 TRS 교신을 들은 걸로(예) 선내방송을 하던 들어가서 구조해야 한다는 상황을 인식한건?(9시 44분 대부분 못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보고를 통한 것이라 진술)
- ▶ 44분 상황을 인지하고 서해청 상황실, 광역구조본부장인 김수현 청장 등 서해청 간부들은 언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가?(본청, TRS로 구체적 지시를 하고 있고 목포서장이 지시하는 내용 등이 있으므로 어느 구조본부에서 지시만 하면 되지 혼선을 일으키니까 서해청은 청장이 아까 부력 유지하라는 식으로 서장에게 지시한 내용, 그정도임)

- ▶ 승선지시, 대공방송지시, 선내방송 지시 서해청 모두 하지 않았는가?(구체적으로 대공방송하라 이런 지시는 안했다)

- **이춘재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10시 35분 서해상황담당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의 대화록. 여객선에 항공구조단이 못내려가느냐? 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보여줬어야 하는데 등등.. 여객선에 항공구조단이 못내려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구조사들이 구조활동을 하지 않았는가 증인 진술) 근데 아직 못내려갔다는게 무슨 말(기억이 나지않는다)
- ▶ 채증을 제대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 ▶ 저런 상황에서 저런 질문을 한 것이 도저히 채증을 한 것으로 안보임(김진 위원)

- **김경일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4월 28일 인터뷰를 누가? 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 ▶ 김경일 : 위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하게 됨, 서해지방청으로부터 연락받았고 서해지방청 가니까 직원이 있었음. 누가 인터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음.
- ▶ 증인이 경찰정보에 123 퇴선방송을 했다는 말을 안했는데 처음으로 퇴선했다고 허위진술을 함. 이 인터뷰는 매우 중요하다. 해경본청에서 준비자료를 만듦.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 ▶ 김경일 : 김문홍 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

추가신문 - 신현호 위원

- **김석균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청장이 세월호와 직접 통화를 해서 대피명령 내린 적 있는가(그런적 없다) 123정장에게 최소 선내진입을 해서 승객대비 지시를 내린적 있는가(없다) 현장상황을 지시하지 못할 상황이 있나요?(본청장이 직접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면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바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회한이 남는다고 진술)

추가신문 - 박중운 위원

• 유연식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서해청은 허리역할(목포서, 본청) 정보공유가 되면 거리와 무관하게 동시에 알게되는 것인데 초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진도VTS 교신사실 등을 목포서장이 몰랐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가 중요인물까지도 정보공유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김문홍 : 상황실 등을 믿고 있었던 것이 큰 원인
- ▶ 유연식 증인은 듣기만 하고 구체적 상황 직접 개입지시는 안한 것이죠?
- ▶ 유연식 : 안했다. 평소 훈련을 하면 보고가 올라오는 체계이기 때문에 .. 기초정보를 교신하는 것 이런 정도는 아주 구조의 평소 훈련에 기초업무이기 때문에 지시를 안해도 쪽 해온 것.. 챙겼으면 좋았을 것이나 챙기지 못함
- ▶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 다른 업무 때문에 현장상황지휘를 못했다고 함. 그게 보고 때문인가?
- ▶ 유연식 : 다른업무가 아니고 세월호 사무처리업무, 상황보고는 아니고 문자시스템 확인, TRS 교신취청정보, 외부기관 문의, 전체적인 초기 전파가 됐는지 이런 지시 등 그런 업무임
- ▶ 서해상황실 직원은 몇 명인지?(네명 역할분담은 실장, 부실장, 등 역할분담은 있다)
- ▶ 개인적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직원을 더 증원, 역할분담 다시 해야 하는 것?(인력충원은 제소관은 아님)
- ▶ 중앙, 광역, 지역구조본부 세곳 각 구조본부간 상황실 역할분담은?
- ▶ 유연식 : 또렷히 규정으로 세부적인 것은 안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훈련하면서 가지 수준에 맞게 전파하는 업무, 상황을 파악하는 업무 그런 식으로 진행

추가신문 - 최일숙 위원

• 김석균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해경이 당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가(없다) 중국, 일본, 호주 등에 지원 요청한 적이 있는가? 외국에서 지원받고 하는 문제는 외교부라든지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요청하는 것 지원요청 안했죠?(직접 하지는 않음)
- ▶ 외국지원은 해경관할 사항이 아니다, 외교부 사항이다 말씀인지? 수난구호법 22조를 보면 미국이나 중국의 협조요청은 외교부나 해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구조구난의 소관부서

인 해경의 문제라 파악되는데? (진입허가는 해경이 관여하는게 맞지만 저희보다 외교역량 국제교섭이 많은 다른 정부기관이 했음)

- ▶ 국방부, 외교부, 해경에서 서로 협의한 사실은 있는가?(구체적 협의는 하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논의됨)
- ▶ 해경이 적극적으로 외부지원요청 의견은 없는 걸로?

• **이춘재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범정부대책본부에서 거의 논의 미해군, 네덜란드, 일본에서 전문가 와서 현장 수색작업 참여
- ▶ 중국에 대해서 구조요청은 안했는가?
- ▶ 직원을 중국에 파견하여 장비검사까지 확인하고 그게 인양과 관련된 장비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장비는 아니라고 판단 유보 범대본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진술
- ▶ 언딘 리베로 투입되기 30시간 전 4월22일 밤 12시 40분 현대 보령호가 도착 대기, 실제 투입하지 않은 이유 보고 받아서 알고 있었는가(예)
- ▶ 현대 보령호는 잠수장비가 없음. 빈 바지 그것만으로는 잠수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 소조기여서 잠수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
- ▶ 금호호 입수포인트는 한 두군데 밖에 없음, 세월호는 큰배이므로 교체 필요없이 추가투입을 하면 수색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증인얘기는 입수포인트 추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대 보령호가 입수장비가 없기 때문 배제 그런건가?
- ▶ 금호바지가 작아 교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으나 보령호 도착후 24시간 뒤에 잠수장비가 세팅되어 있는 언딘 리베로호가 도착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나중에 현대 보령호도 투입 7월 10일정도

추가신문 - 이호중 위원

• **김경일/박상욱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기관실 직원 5명 구조, 3명은 일체형 작업복 착용 정말 직원인지 몰랐는가?(몰랐다)
- ▶ 박상욱에게 : 조타실에서 선원을 데리고 나왔는데 복장을 보면 일체형 스키복을 입고 있었고 강원식 1등항해사는 청해진 해운마크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음. 김형오 2등항해사는 목에 무전기를 걸고 나옴. 조타실에서 전혀 몰랐는가(몰랐다)
- ▶ 인명구조를 하면 맨 처음 무엇을 하는가? 인적사항 파악이라고 진술, 인적사항 파악했나

(세월호에 있었다고 진술 : 박상욱)

- ▶ 김경일에게 인적사항 파악했다 질문(못했다고 진술) 파악하라고 지시했는가?(안했다, 신경 쓰지 못했다고 진술)
- ▶ 기관실 선원 5명이 123정 탑승한 후 선원들 어디?(침실로 확실한 건 모르겠다 : 김경일)

ppt - 주변해역대형해상사고 대응매뉴얼

• 이호중 위원

- ▶ 두증인(박상욱/김경일) : 매뉴얼 보신적 있는지 질문. 생존자 인적사항 확인, 의식이 있는 경우 간단한 문답 실시, 생존자 발견시 응급조치, 인적사항 확인 일종의 수칙. 한마디도 안 물어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답변이 안되는 내용
- ▶ 김경일에게 : “승객들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서 못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녹취록에 있음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 (확실히 모르겠음) 누군지도 모르고 TRS를 보내는가? 뒤에서 들렸다는 것인지?
- ▶ 당시 9시 44분경은 고무단정이 기관실 선원을 123정에 데려다 놓고 123정이 조타실로 가고 있을 상황. 123승조원이 아니라 구조해서 나온 누군가 다섯사람 중 한명일 가능성이 크다 동의하는가?(조타실에는 우리 직원 외에 없다고 진술) 직원 목소리도 구분하지 못하는가?
- ▶ 9시 10분부터 10시 6분 사이 윈브릿지 선원구조 후 유리창 깨고 승객 구조하러 갈 때까지 그 기간 그때 누가 타를 잡았는가?(박성삼도 있고 기관장도 잡아줬고 그중 필요하면 밖에 나가고 했다고 진술) 김종인 증인은(수시로 왔다갔다 했다고 함) 당시 조타실에 주로 있던 사람은 누구인가(정장 부정장 기관장 항해팀장 주로 이렇게라고 이형래 진술)
- ▶ 10시 6분경 당시 이종욱 박상욱 이형래 그다음에 의경들이 유리창 깨는 구조를 하러 갔을 때 승조원이 아닌 사람이 몇 명 같이 갔는가? 협력했던 사람은?(3명에서 5명있던 것으로) 위험한 일에 승객들의 참여시키는 것이 맞는가?(김경일 바람직하다 말함)
- ▶ 김영호 2등항해사 검찰조사 과정에서 “제가 123정 조타실에 있었는데 저기 사람이 있으니 가보자”라고 해서 같이 갔고, “유리창 너머에 라이프자켓을 흔드는 모습이 있는 것을 함장도 봤다”라고 진술(김영호의 진술에 대해 그런적 없다고 함 : 김경일) 김영호라는 2등항해사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지?(기억이 없음) 당시 김영호가 조타실에 들어왔나(기억이 없다) 그런 일 없나 기억이 없나(그런 일 없다 : 김경일)
- ▶ 김영호 진술에 해경 중 한명이 “저 안에 사람들이 많겠네요” 해서 그럴 거라고 했고 해

경이 직책, 주소, 성명같은 것을 물어봤다고 2등항해사라고 밝혔다고 진술(박성삼이 2등 항해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의했을 것이라고 진술)

PPT로 정리(이호중 위원)

1. 선원들 복장
2. 14명 중 9명이 선원임을 밝힘 검찰에서
3. 승객이 구조하면 하는 상식에 부합하는 질문이 있지 않은가
4. 김경일이 TRS를 남한테 들은 방식으로 보고. 구조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큼
5. 선원중 일부는 조타실에 같이 있었다는 진술
6. 해경이 승객이 데리고 구조를 하는 것은 법령이나 매뉴얼에는 없으며, 김영호 2등 항해사가 123정 조타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7. 10시 50분경 전남 707 행정선에 승객이 52명 중 5명 외에 인계, 그중 다섯명이 모두 선원이었다는 점

추가신문 - 권영빈 위원

• 이재두 증인 주요질문 및 답변 내용

- ▶ B512가 사고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았나? (예) 보고를 했나? 증인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닌가?(헬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목포서장도 같이 보았나?(보고를 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황이었다고 진술)
- ▶ B511는 호텔2라는 약식을 씀. 호텔2가 '선상과 배안에 승객 있음 해상에는 인원이 없고 중간에 전부 다 있음 수신완료'라는 TRS 증인들 들은 기억있나/ 09시 27분 123정 도착 직전(이재두 없다) 서장도 같이 들었다면 호텔2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던 내용 들은 적이 있는가(오래된 상황이라 기억이.. : 이재두)

방생객 마무리 발언- 유경근 집행위원장

- ▶ 특조위원들은 사명감으로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참사의 진실을 밝힐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철하게 임해주시기 바람
- ▶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 해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하던 아이들이 원망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을 마감한 책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증인들이 느껴야 할 것임이 분명함
- ▶ 세월호참사 배후에 무언가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99%의 의심과 확신이 오늘 하루 청문회를 통해 200% 확신으로 바뀜
- ▶ 증인들의 뻔한 거짓말과 하급자에 대한 책임전가, 구조방기에 대해 질타(특히 박상욱, 김경일, 이춘재 등)
- ▶ CN-235 촬영 영상을 청와대에서 보낸 정황이 있음. CN-235가 출동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람
- ▶ 불출석 증인과 이석한 증인, 진단서 확인해주시고 내일 반드시 출석시켜주시고, 위증과 불출석 증인에게 반드시 사법처리해 주길 기대
- ▶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왜?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끝끝내 위증하고 거짓말하게 숨기려고 감추려했던 당신들은 이 진실이 드러나는 날 세월호참사의 주범이나 원인이 될 것임 그 전에 양심선언 하시고 똑바로 진실규명 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람 그것이 바로 당신들의 자식들이 얼굴을 들고 사는 길임. 남은 시간 동안 끝까지 지켜보겠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회 선언(21시 12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내용 정리

기록은 2015년 12월14~16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문회 진행 내용을 정리한 문서임

제2일차 청문회기본정보

- ▶ 진행일자: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 ▶ 진행장소: 서울YWCA 4층 대강당
- ▶ 참가인원: 92명 (추가 인원 포함 110여명)
- ▶ 연대참가: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 ▶ 진행시간: 11시간 26분 (09:30~20:56, 청문회 개회, 폐회 선언 기준)
- ▶ 특이사항:
 - ☞ 오전 8시 서울YWCA 건물 앞 고엽제전우회 집회
 - ☞ 오후 3시 30분경 서울YWCA 건물 앞 고엽제전우회와 엄마부대 집회 재개 약 1시간 가량진행

대주제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정부 대응의 적정성	
소주제	지휘체계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선행신문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김 진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김서중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증 인: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추가신문위원: 최일숙 (지원소위원회 위원) 장완익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권영빈

서장은 지역구조본부장으로서 적절한 초기대응을 했는가에 대해 신문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당시 3009함에 있던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이 참사현장으로 가면서 9시 14분 이병윤 실장에게 지시한 일곱가지 사항 외에 다른 조치를 취했는가? 123정과 현장 구조세력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바 있는가?
- ▶ 9시 29분 문자상황방(E-MATE)에 참여한 상태에서 왜 상황 공유 및 구조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 ▶ 2014년 6월 2일 감사원 조사에서 이병윤 실장은 참사당시 김문홍이 지시한 일곱가지 지시사항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지시라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조치가 있었는가?
- ▶ 지시사항이 있었다면 이병윤 실장이 이행하지 않은것인가?
- ▶ 김문홍은 9시 30분경 P123정이 도착한 후 10시까지 무엇을 했는가?
- ▶ 수난구호법에 의하면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지역구조 본부의 장이 됨. 지역구조본부장은 사

고현장에서 수색구조작업을 해야 함. 헬기를 타고 긴급하게 출동하여 P123정급 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함정을 동원하여 구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 ▶ 감사원 징계결의서를 토대로 보게되면 김문홍도 형사책임을 져야 할 듯 함

• 김문홍 증인 주요 답변

- ▶ 3009함이 출동하면서 '전속력으로 가라.', '퇴선자 대비해서 온수, 담요준비하라.', 'TRS입장 시키라.', '군함장비를 철저히 갖추어라.'라고 지시 했음(이외 지시사항에 대해 말하지 못함)
- ▶ 9시 24~26분 사이 TRS를 통해서 '지금 선상에 없음', '안에 다 있음.', '중간에 다있음' 이라고 상황을 파악 함
- ▶ 세월호를 지목해서 이야기한적은 없지만 서장 지시사항으로 군함장비 준비, 인명구조 철저에 대해 지시내렸다.
- ▶ 문자상황실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문자상황실 담당자가 따로 있음
- ▶ P123정 도착 후 진도파출소에 전화하여 주변 어선을 동원하라고 지시함(서해정, 본청과는 상황공유를 하지 않음)
- ▶ P123정이 배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하자 땡땡땡 힘좀내봐 라고 했음(본청 녹취록에서는 P123정장의 말로 나옴)
- ▶ 감사원 조사 당시 한 말들은 자료한번 못 보고 경황없이 한 대답들이었음.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여 소청을 넣었으나 기각되었음
- ▶ 헬기로 출동을 하게되면 소음과 장비부족으로 인해 진두지휘가 불가능 함. P123정장의 구조여력을 뺏을 수도 있고 TRS외에 IP전화, 메신저 등이 되지 않는 관계로 3009함에 머물렀음

선형신문 - 김 진

해양경찰청 청장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은 참사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많았음. 또한 상황정보를 수집, 판단, 전파, 지시를 내려야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신문

•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보면 함정이나 항공기가 두척이상 있으면 OSC지정 지시를 해야 한다. 김수현 본인이 지정에 대해 지시 하였는가?

- ▶ OSC로 지정된 P123정이 해상 구조세력 전체를 지휘하긴 어려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 ▶ 특공대 출동명령은 언제, 무엇을 통해서 지시내렸는가? 또한 출동 상황 전반에 대해 확인 및 상황 공유를 했는가?
- ▶ TRS로 구조세력들에게 상황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지 않았는가? 헬기는 상황전파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음
- ▶ 잠시후 침몰하는 배에 사람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면 당시 지휘관은 어떤지시를 내려야 하는가? 배가 70도 기울었을 무렵 배수 작업 후 배를 세우자고 제안하는데 적절한 판단인가?
- ▶ 9시 17분경 서해청장 지시로 목포항공대 502헬기를 잡아둔이유는 무엇인가?
- ▶ 왜 출발을 미루어 한참 늦은 11시 3분 현장에 도착했는가?

• **김수현 증인 주요 답변**

- ▶ 당시 임무조정관은 경비과장으로 생각함. OSC는 이미 지정 되었다고 믿었다고 함
- ▶ 특공대는 나의 책임소관이나 특공대장이 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동하리라 믿음
- ▶ 감사원 문답서에 나와있듯이 9시 27분 TRS를 통해 선내 승객이 다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 문자상황방(E-MATE)를 통해 지시를 내렸음
- ▶ 기억이나지 않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함

• **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 대부분의 정보공유 및 지시전달이 문자상황방(E-MATE)를 통해 이루어진 이유는?
- ▶ 9시 38분 경 여인태 과장이 P123정장과 유선전화를 통해 2분이 넘는 시간동안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보고를 받고 상황을 파악했는가?
- ▶ 본청은 상황인식 후 승객구조를 위한 판단 및 지시가 있었는가?
- ▶ P123정이 현장에 도착함을 알고 추가 구조세력을 파견하지 않은이유는 무엇인가?
- ▶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대를 준비시키는 등 의전에 신경쓴 것으로 보이는 행위들은 왜 이루어진 것인가?
- ▶ 육경의 도움을 자처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혼선이 없도록 문자상황방을 사용했음(헬기에는 문자상황방 확인 시스템이 없음)

- ▶ 9시 40분경 승객이 배안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하였으나 파악경로는 기억나지 않음
- ▶ 현장에 추가 구조세력을 보낸 기록이 있음(보여주거나 설명하지 않음)
- ▶ 육경 지원에 대해 보고받은 바가 없음
- ▶ 기억이 나지 않으나 기록 상으로는 그렇더라는 대답으로 일관 함

선행신문 - 김서중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해양사고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보면 위기관리체계 상 대형재난 발생 시 청와대 보고를 요구하는데, 청와대는 관리책임이 있는 곳이라 해석하는게 맞는가?
- ▶ 신속한 상부보고가 우선인가? 재난대응이 우선인가?
- ▶ 청와대 첫 상황보고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가?
- ▶ 상황보고서 전파대상 기관이 어디까지인지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 ▶ 청와대에서 영상을 요구가 계속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가? 매뉴얼상 청와대는 본청이 대응하도록 되어있는데 상황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보고 요구로 인해 구조지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 ▶ 청와대는 구조와 관련한 의미있는 지시가 따로 없었는가?
- ▶ 왜 청와대에 선조치 후보고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 ▶ 10시 30분경 청와대 측에서 지시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청와대는 책임기관이며, 보고보다 재난대응이 우선
- ▶ 인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고문제로 소홀한적 없음(방청석 야유)
- ▶ 청와대는 직접적 지시가 없었으며 전 구조세력 동원, 지시권은 본인에게 있음
- ▶ 자세한 전파체계와 내용, 전달과정은 세부적인 것 까지 알 수 없으므로 대답할 수 없음
- ▶ 매뉴얼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세한것까지는 알지 못하다는 대답으로 일관
- ▶ 청와대 지시에 대한 부분은 구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지시였으며, 특공대출동 등에 대한 내용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항

선형신문 – 권영빈

- **김수현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TRS 녹취록이 3가지 판본이 있으며 그 중 요약본은 검찰수사 대비 검찰청에 제출된 사실을 아는가? 누가 제출했는가?

- **김수현 증인 주요 답변**

- ▶ TRS 녹취 요약본 제출자는 알수 없음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TRS 녹취 요약본에 대해서 아는가?
- ▶ 녹취록 관련하여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적 있는가?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이춘재 국장이 보낸 자료를 확인하면 녹취록 형태가 두가지 임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판본들에 대해 아는바가 있는가?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 함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검찰에 제출된 자료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녹취록에 대해서까지는 모름
- ▶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 보고받은적은 없음
- ▶ 녹취록 판본이 두가지인 사실은 몰랐으며 자료요청은 현재 권한이 없어 하지 못함

- **김수현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TRS 녹취록 제출시 음성파일이 제출되지 않음
- ▶ 음성파일을 청취한 결과 의도적으로 빠진 부분이 많은데 이 사실을 아는가?

- **김수현 증인 주요 답변**

- ▶ TRS 녹취 요약본 제출자는 알수 없음
- ▶ 그런 사실들을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이 당시엔 되지 않아 모름

- **김문홍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녹취록과 녹취록 요약본에 관련하여 아는 바가 있는가?
- ▶ 조용관 증인은 존재사실을 알고 카피를 해갔다고 진술했음

- **김문홍 증인 주요 답변**
- ▶ 현장에서 듣기는 했으나 본적이 없음

선행신문 - 김 진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청와대의 영상요구가 구조에 영향이 없었다고 하나 참사 현장 구조당시 해경이 구조자에게 사진을 찍기위해 다시 빠졌다 올라오라는 요구를 했다는 진술이 나옴. 당시 해경을 상대로 고소까지 이루어진 사건
- ▶ 세차례에 걸친 P123정 승조원과 정장의 인터뷰는 지시한 사항인가?
- ▶ 정장은 인터뷰에서 참사당시 퇴선명령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 ▶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쟁점은 사고직후 작성되었으며 참사와 관련한 각종 쟁점에 대한 답을 정해놓은 자료. 이 자료는 대외비로 책정되어있는데 누구 지시로 제작되었고 대외비로 책정되었는가?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해경이 사진촬영을 위해 한일과 고소된 사실은 알지 못하는 내용
- ▶ 기자회견 등은 홍보팀이 담당하는 바라서 알지 못하며 보고받은 것, 기억나는 것도 없음
- ▶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지만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쟁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
- ▶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쟁점자료는 이춘재 국장이 보여준 1문 1답 자료와는 다른 내용

정회(오후 12시 16분) - 점심시간

속개(오후 13시 30분)

추가신문 – 최일숙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대통령은 통화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 ▶ 특공대는 왜 늦었는가? 특공대는 잠수능력이 있으면서 왜 가이드라인 설치를 하지 않는 등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 ▶ 구조본부장의 능력으로 충분하지 않아 컨트롤타워의 지휘를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은 왜 하지 않았는가?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대통령은 전국 특공대를 투입하여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말함
- ▶ 해경만으로 충분치 않아 해군을 동원
- ▶ 대통령에게 컨트롤타워 지휘 건의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 함

추가신문 – 장원익

- **김수현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헬기 B-513은 제주항공단 소속으로 현장으로 달려왔는데 TRS에 접속시키지 않고 상황전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질문

- **김수현 증인 주요 답변**

- ▶ 소속이 달라서 교신관계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었음

추가신문 – 이호중

- **김문홍 증인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당시 대통령 현장 방문 전까지 잠수부가 입수하는데 사용한 배가 무엇인지 질문
- ▶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조타실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질문
- ▶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어땠으며 보고 후 어떠한 질문도 없었는지 질문
- ▶ 대통령 방문 당시 오후 1시부터 8시간 가량 왜 입수를 하지 않았는지 질문

- ▶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정확했는지 질문
- ▶ 가족들에 대한 보고가 왜 정확하지 않았는지 질문(참사 당시 진도체육관 보고영상, 잠수사 500명 투입에 대해 언급)

• **김문홍 증인 주요 답변**

- ▶ 그 당시 현장 지휘자가 아니라 잠수부 입수에 사용한 배에 대해 모름
- ▶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도였고 질문 받은적 없음

• **김석균 증인 주요 답변**

- ▶ 잠수부 입수에 사용한 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음
- ▶ 대통령을 모시고 오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으나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음
- ▶ 대통령 방문일 파고가 2.5m정도로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바다는 잔잔했다는 잠수사의 증언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입장 고수)
- ▶ 잠수사 500여명 투입이라는 말은 입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잠수사를 포함한 지원세력 등 동원된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가족과 대통령을 속인 것은 아님

1세션 종료, 정회 오후 2시 38분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활동 등	
선행신문위원: 류희인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증 인: 이경옥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차장) 이재율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총괄조정관)	
추가신문위원: 최일숙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 박청웅 (전남소방본부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방재청 청장)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류희인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변경한 의미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의 변화, 영향에 대해 신문

- **이경옥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기존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통합한 이유에 대해 질문
 - ▶ 이런 재난 관리방식을 운영하는 해외사례는 있는지 또 이런 운영방식은 조직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질문
 - ▶ 사회재난과 인적재난의 유형과 대응방식이 유사하여 통합하여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통합했고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접근이었다고 대답

• **남상호(소방방재청 청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개정된 법에 따르면 중대본 구성 권한이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이관되므로 인력 또한 안행부로 옮겨야 하나 기관장이 거부 한 것이 맞는지 질문
- ▶ 기본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부족한 일력을 보내는 것보다 중대본 구성 시 전 부서가 비상 근무 체제로 태세전환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나음

• **이재율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2014년 2월에서야 시행령과 함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 ▶ 6개월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적재난매뉴얼을 담당자들이 숙지하고 있었다고 대답
- ▶ 참사당일 9시 19분 사고를 인지하고 9시 45분경 중대본을 구성했는데 오후 6시경까지 중대본은 법적규정대로 해경, 해수부 등에 관련부처에 대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총괄지휘를 했는지 질문
- ▶ 당시 구조상황이라 안행부에서는 지휘하기 어렵다고 대답
-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지닌 NSC를 전격해체하면서 안행부에 군사안보 분야를 제외한 분야들의 매뉴얼을 행정안전부로 넘겼음. 이 매뉴얼이 2000여개나 되기 때문에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안전산망에 전산화하여 정부기관이 공유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실무매뉴얼관리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다고 대답) 공안전산망을 이용하면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문제되지 않고 지휘체계를 통해 활성화 할 수 있었음

• **이경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법적 근거가 모호한 범대본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자 안행부의 기능을 하루만에 이관 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중수본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적근거에 따라 중앙수습본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범대본이 구성되었던 것임
- ▶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도 전에 해체하여 국가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와 각 부처의 역할을 공유하지 못하게 한 것이 큰 문제였음.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안행부의 문제도 크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마무리

선행신문 - 박종운

• 이재율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매뉴얼은 안행부에서 제작을 하게 되어있는데 마우나리조트 참사 당시 매뉴얼이 없었는데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다른 매뉴얼이 있었다면 훈련을 했는지 질문
- ▶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매뉴얼로 대응을 하였고 훈련은 일년에 3번정도 했다고 대답
- ▶ 중대본은 평소 예방 대비업무 활동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질문
- ▶ 인적, 사회적 재난의 경우 조짐이 보일 때 대비훈련을 한다고 함
- ▶ 범대본 결성과 중대본 기능의 이관 등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질문
- ▶ 국무총리의 지시였다고 대답
- ▶ 안행부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음. 특별한 대책 또한 없었음
- ▶ 증인은 있었다고 강하게 부인

● 박종운 위원 이재율 증인에게 요구

- 안전행정부가 416세월호참사 당시까지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관련 특별 대책 자료를 넘겨주기로 약속

• 남상호(소방방재청 청장), 박청웅 (전남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소방 전문교육과정에서 상황관리 통신 정보공유와 관련한 사항들이 축소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알고 있었는지 질문
- ▶ 알고 있었으며 축소라기보다 사이버교육을 통한 교육확대를 염두했음(남상호)
- ▶ 전남 소방또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눔. 선박 긴급구조 훈련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
- ▶ 정기적으로 1년 1회 있으며 훈련시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은 통제 관제 소방방재장이 됨 (해당인원이 남상호, 박청웅)(박청웅)

• 박준영(전라남도 도지사)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 초기 가장 중요한 시기 구조활동을 해야 할 소방헬기가 도지사를 데리고 현장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당시 도의회가 있었고, 안가도 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재난통제본부장으로서 가야 했다고 답변
- ▶ 현장에서 별다른 정보수집 및 구조지휘가 있었는지 질문
- ▶ 상세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고 답변
- ▶ 현장에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조치를 취했으나 부족했다고 답변

추가신문 – 칙일숙

• **이경옥, 이재율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당일 중대본은 언론 브리핑을 총 6번에 걸쳐 하였는데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작성했는지 질문
- ▶ 누가 작성했는지 상세히 알수 없다고 대답(이경옥, 이재율)
- ▶ 2014년 4월 17일 이후 중대본은 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 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 답변(무엇을 했는지는 말하지 않음, 이경옥)
- ▶ 브리핑을 할 때 기본사항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으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와 내용이 부정확한 이유가 재난 발생시 정부부처간 소통문제가 아닌지 질문
- ▶ 브리핑 보고서 작성 시 원칙상 기본적인 부분(상황 설명)은 담게 되어있으며, 부처간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이경옥)
- ▶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있었는지 질문
- ▶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하였으며 다른 훈련은 재난 훈련 때 했다고 대답(이경옥)
- ▶ 보고서 내용은 어디 보고를 받고 작성하였으며 정보에 왜곡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해경, 해수부를 통해 보고 받으며 의도적인 정보 변경은 없었음. 보고시점과 브리핑 시점이 달라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듯 하고 본인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부하직원들이 작성해준대로만 브리핑 했다고 대답(이경옥)
- ▶ 해양경찰청에서 오후 6시 26분 상황보고서가 전파 된 후 12시 브리핑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정정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던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당시 진도현장을 갔기 때문에 모름
- ▶ 오후 3시 30분경 이경옥이 “잠수부가 선체에 들어간 것을 확인”이라고 답변하는데 누구에게 확인한 것인지 질문

- ▶ 당시 해경, 해수부 파견관이 전달받은 것이며 누구인지는 모름(이경옥)
- ▶ 대통령 방문시 잘못된 내용들이 보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통령이 상황에 맞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것 또한 중대본이 원인제공을 한 것이 아닌지 질문
- ▶ 보고체계는 다양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답변(이경옥)
- ▶ 대통령은 선체수색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었는지 질문
- ▶ 없었다고 대답(이경옥)
- ▶ 이경옥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감사원 감사종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 있음

● **최일숙 위원 이재울 증인에게 요구**

- 중대본 상황보고서 작성 담당자를 확인하여 알려 줄 것

● **최일숙 위원 이경옥 증인에게 요구**

- 대형재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부처간 의사소통 훈련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알려 줄 것
- 당시 중대본 상황실 해경 파견관의 신원을 확인해서 알려 줄 것

추가신문 – 김선애

• **박준영(전라남도 도지사)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팽목항과 가까운 건물이 아닌 진도체육관을 가족들의 숙소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질문
- ▶ 구조된 생존학생을 피난 시킬 곳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도체육관이 본부가 되었음. 전남대 수련원은 규모가 작아서 배제했고, 체육관-팽목항 사이가 멀지만 이동이 가능하게 했다고 대답

정회없이 다음 세션 시작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해양(선박)사고관련 메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등(1)	
선행신문위원: 이상철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증 인: 이경옥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차장)	
추가신문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류희인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우예종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임현철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장)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이상철

- **우예종(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임현철(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장) 주요 질문 및 답변**
 - ▶ 직책이 무엇이었는지 질문
 -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도 보았음. 해수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되면 총괄팀장을 맡게 된다고 대답(우예종)
 - ▶ 해양수산부 안전국장이며 중수본 설치 이후 상황반장 역할을 맡았다고 대답(임현철)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위기관리 메뉴얼을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과거 NSC에서 2004년 NLL 북쪽 선박 조난사고 이후 주요사항대응매뉴얼이 만들어졌고 이 매뉴얼은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에 준하는 내용으로 내용적 차이가 없다고 대답(임현철)
 - ▶ 그렇다면 주요사항대응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있었는지, 세월호 참사 당시 그 훈련사항과 역할 분배 사항이 적용 되었는지 질문

- ▶ 대규모 훈련은 했으며 참사당시 적용에 대해서는 드릴말씀이 없다고 대답(임현철)
- ▶ 2014년 2월까지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정비를 완료되었는지 질문
- ▶ 해수부 장관의 지침으로 표준매뉴얼을 정리하려고 안행부와 협의가 있었음. 그러나 안행부는 명확한 판단지침을 주지 않았음. 이후 2014년 8월 제정이 되었음
- ▶ 416세월호참사 당일 중수부 구성 과정에 대해 질문
- ▶ 구두로 사고보고를 받은 후 실국장회의에서 대형사고로 판단했음. 이후 장, 차관에게 보고 후 구성하게 되었다고 대답(우예종)
- ▶ 안행부 중대본과 해수부 중수본의 관계는 어떤지 질문
- ▶ 중대본이 상위조직으로 사고수습, 각 부처 관계를 조정 한다고 대답(우예종)
- ▶ 매뉴얼상의 소통 절차가 있는데 확인은 하였는지, 사건당일 커뮤니케이션 대응절차에 따른 브리핑에서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질문
- ▶ 커뮤니케이션 대응절차를 당시에는 숙지하지 못했고 충격상쇄용 기사아이템 관련 문구의 경우 작년 여수 기름유출 사건당시 피해는 다른 지역이 보았는데 여수 수산물 인식이 나 빠지는 오해가 있었던 사례와 같은 것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음. 불찰로 인식하고 있음(임현철)

선행신문 - 박종운

• 임현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금년도 해수부, 해경 선박사고 대응훈련에 참관을 했는데 실전적 훈련이 없었음. 416세월호참사 이전에도 선내진입이 포함된 훈련이 없었는지 질문
- ▶ 없었음

• 이경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 당일 해수부에서 구조구난 관련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
- ▶ 참사 당일 이후에 있었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없었음
- ▶ 법령상 각종 본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정작 소통은 되지 않은 듯 함. 개선을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
- ▶ 매뉴얼이 해결해주는 것은 아님.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함

- **우예종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이주영 해수부장관은 누구에게서 상황보고를 받았는지 질문
- ▶ 경제장관회의 참석 중 파견나온 해경 총경 급간부 치안정책관이 문자로 보고 했으며 상황 실에서도 비서관을 통해 구두보고를 했다고 대답
- ▶ 진도현장으로 갈 것을 제의한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동수단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질문
- ▶ 잘 알지 못하며, 헬기로 이동했음. 헬기는 해경이 잘 알것이며 요청인 등 자세한 사항은 모름

● 박종운 위원 임현철 증인에게 요구

- 이주영 장관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진도로 이동 할 당시 해수부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등을 파악 줄 것을 요구

선행신문 – 류희인

- **임현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이전에 증인이 말한 주요상황대응매뉴얼은 바위섬호 조난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2개월뒤 파이오니아나야호라는 한국 상선이 조난당하면서 수색 및 유류품을 찾아오면서 만들어내 매뉴얼임
- ▶ 2004년 2월 대규모인명피해 선박사고대응매뉴얼은 약9년간 내용상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
- ▶ 주관기관이 해수부에서 해경으로 변경되었으나 내용상 변화는 없었다고 대답
- ▶ 류희인의 정리 - 선박사고대응매뉴얼은 8년간 방치되었음. 즉 중대본이 종합관리체계에서 빠져있었음. 또한 매뉴얼 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음.

선행신문 – 신현호

- **이경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대량인명피해 상황에서 생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되는지, 현장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질문
- ▶ 매뉴얼은 있을 것 같으나 신속하게 하는 것이 기본원칙 이라고 대답,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매뉴얼을 좀 더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대답

- ▶ 진도체육관에 가족이 오후 5시경 도착했는데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사람들인다고 공무원들이 항의를 해서 가족들이 당황했다고 함. 참사시점부터 시간이 오래지났는데 왜 준비가 없었는지 질문
- ▶ 지원 수습을 책임지는 대응 기관간에 협조가 부족함을 느꼈다고 대답
- ▶ 팽목항에서도 가족에 대한 지원이 형편없었음. 참사현장에 직접 배를 구해서 간 가족들도 있었으며 이런 무대응으로 인해 가족들의 불신이 심각해졌음.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질문
- ▶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겠다고 대답

• **우예종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중수본에서는 가족들 지원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문
- ▶ 자세한 부분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전남도와 진도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
- ▶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 중수본과 중대본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
- ▶ 알아서 하도록 놔둔 것은 안된다고 본다고 대답(이경옥)

대주제	해양사고 대응 메뉴얼(규정 등) 적정성 여부	
소주제	해양(선박)사고관련 메뉴얼을 중심으로 한 현장 지휘체계 가동의 적정성 등(2)	
선행신문위원: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증 인: 김석균 (해양경찰청 청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박종철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색구조과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민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상치안상황실 C팀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김경일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정장)	
	추가신문위원: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불참한 증인: 김윤상 (언딘 사장) 사유 : 회사 존립에 관한 불가피한 일정과 중복)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 협회장) 사유 : 회장사퇴, 해외출장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이호중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 당일 해경이 각 기관에 전파한 상황보고서에 잠수사 160명(해경 118명, 해군 42명)이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잠수는 몇 번 했는지 질문
 - ▶ 잠수사 한명이 들어가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함. 보조인원과 대기인력까지 이야기 하는 것 이라고 대답

● 이호중 위원 김석균 증인에게 요구

- 2014년 4월 17일 잠수가 불가능 할 정도의 기상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구

• 김경일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현장 지휘관으로 지정된 증인은 1차적으로 선체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VHF 16번 채널로 세월호를 1분사이 세 번 부른 후 계속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채널을 바꿔서 부를 생각은 왜 안했는지, 헬기는 왜 하지 않았는지, 현장 상황 파악이 제1업무인데 왜 소홀 했는지 질문
- ▶ 당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대답
- ▶ 증인은 경황이 없었다고 하지만 9시 13분부터 참사현장 도착 후 구조 상황에 있을 때까지 데이터통화 이력이 있는데 무엇을 했는지 질문
- ▶ 기억이 없다고 대답, 모르는 전화가 두 통 왔다고 대답(그러나 발신내역이었음)
- ▶ 참사 현장에서 증인은 TRS로 경사가 심해서 못들어간다고 보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구조의지가 없다는 표현이 아닌지 질문
- ▶ 기울기가 심각해서 못들어간다고 했을 뿐 이라도 대답

• 김문홍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 ▶ 선장이 배를 버리고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고 대답 (본인잘못을 이야기 하라고 이야기 하자 전부 다 본인 잘못이라고 대답)
- ▶ 당시 상황상 본인의 대처에 관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질문
- ▶ 아이들 생각만 하면 잠도 못잔다고 대답(방청석 항의가 빗발침)
- ▶ 당시 3009함은 VTS 16번 하나만 쓴 이유는 무엇이며 지속적인 선체와 연결시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
- ▶ 통달거리가 닿지 않았다고 대답(감사자료는 시도하면 성공했을것으로 결과 나옴)
- ▶ 수난구조법을 보면 지역구조 본부장의 임무는 현장지휘인데 제대로 이행했는지 질문
- ▶ 현장지휘란 포괄적 업무이고 다른 대응들을 했었음. 하지않은 일만 이야기 하지 말라고 대답 (방청객 항의)
- ▶ 감사 중 이병윤 실장은 김문홍 증인의 지시가 특별한 지시가 아닌 일반적 지시라고 함. 이 상황은 이병윤 실장이 하극상을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해수부 기강이 해이하거나,

증인이 거짓말하는 것인데 왜 그런 증언이 나왔는지 질문

(당시 증인은 1. 가용세력 총 동원하라, 2. P123정장에게 여객선에 승선하여 구명벌을 투하하도록 지시, 3. 선장이 상황 파악해서 승객에게 퇴선명령하도록 지시, 4. 목포 122구조대 현장 즉시 투입 지시, 5. P123정장으로 하여금 대공마이크로 퇴선방송을 지시했다 함)

- ▶ 모른다고 대답
- ▶ 이행도 안되었고 확인도 안된 상황이었는데 현장도착 후 바로 선장에게 퇴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질문
- ▶ 배가 침몰하고있다면 모든 사람을 갑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라고 답변
- ▶ 선장은 진도VTS를 통해 서해청에 퇴선명령을 할지 물어본 사실이 있는데 선장 혼자서 판단하여 퇴선명령을 하라는게 적절한지 질문
- ▶ 선장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대답

정회 19시 11분

속개 17시 59분

- ▶ 상황정보문자시스템을 보면 9시 14분부터 이동지시, 참사현장 위치정보를 받고 전속기동을 지시하고 동원세력 이동을 지시한 이후 지시사항이 없음. TRS는 물론 123정에도 정확한 지시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
- ▶ IP전화로 3009함 장비준비를 시키고 상황정보문자시스템으로 전속이동, 단정 휘발유 준비, 구조요원 수트 준비를 지시했다고 대답
- ▶ 목포상황실 문자시스템 통신내용을 보면 9시 14분 선체 침몰정보, 구조요청을 받았고, 9시 18분 본정 승객 구명의 착용조치 지시가 내려오자 조치했다고 답변을 했음. 그러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질문
- ▶ 당시 본인은 현장에 있어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
- ▶ 이후 승객 구명복입고 해상으로 나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를 했고, 탈출하라는 대공방송을 했다는 보고를 연이어 하는데 했는지 질문했음. 그러나 증인 현장에 있었다고만 대답

• 김수현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당일 9시 35분경 군산항공대장이 좌표를 묻고, 군산112구조대 지시에 대해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는 훈련과 조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아닌지 질문(알겠다고 대답)
- ▶ 구조 중 증인이 타고 갈 헬기 502기가 따로 서해청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

- ▶ 현장에 빠르게 가기위해 거쳐가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고 대답(제대로 대답하지 않음)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9시 28분 기획담당관이 청장님이 오셔야 한다는 통화내용이 있음. 그리고 9시 28분 31초 본청상황실이 목포서 상황실에서 상황지휘는 지방청에서 직접하라는 지시가 있고, 청장님 입청했다는 내용이 있음. 9시 10분경 상황실에 있던 것이 확실한지 질문
- ▶ 다시 발언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
- ▶ 현장 지휘자가 곧 침몰할 것이라는 상황보고가 있었음에도 차분히 구조하라는 부적절한 지시만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
- ▶ 배가 완전 전복되어 바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고 대답
- ▶ P123정 이승우 승정이 영상을 찍어 10초, 7초 단위로 보냈다고 진술했는데 보고 받았는지 질문
- ▶ 기억나지 않고 상황실로 전파되었다면 상황요원이 받았을 것이라고 대답
- ▶ 참사 당시 해경본청, 본청상황실, 청와대, 국정원, 유관기관 사이 보고내용과 보고자료를 제출해주실수 있는지 제안
- ▶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라 불가능하다고 거절
- ▶ 안전감독관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감사에 대비하여 호주 평가위원의 자문을 받으면서 수색구조부서 담당기구를 설치를 제안받아서 도입. 따라서 구조조정본부 수색구조업부 조사, 확인, 평가,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수색구조계장이 역할을 맡음. 적절한 조치 인지, 적절히 활동했는지 질문
- ▶ 틀린지적은 아니나 통상적인 활동을 했음. 기록자료는 관련기관에서 담당함(특조위 확인 결과 점검계획은 물론 활동도 없었다고 알림)
- ▶ ICAO에서 권고한 지침에 따라 수색구조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질문
- ▶ 퇴선 훈련은 없었음(ICAO 권고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음)
- ▶ 참사 당일 3009함에서 한 회의에 언딘계열사 금호수중개발 박승도 대표가 참석함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
- ▶ 누구지 몰랐으며 누구인지 따질 시간이 없었음. 인근에 있는 사람을 예하기관에서 협조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대답
- ▶ 본청 상황담당관이 오후 1시 40분경 증인에게 박승도 대표 20분 후 현장도착한다는 연락을 했음. 모르는 사이인지, 알아보려 노력했는지 질문

- ▶ 전문가가 참석한다는 취지에서 참여한 것이고 누구인지 몰랐다고 대답
- ▶ 금호수중개발과 언딘은 구난업체인데 왜 구조상황에 개입하도록 했는지 질문
- ▶ 구조와 구난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대답
- ▶ 당시 구조와 구난을 해야 했는지 질문
- ▶ 배를 인양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와 관련한 문제였음
- ▶ 김윤상 언딘대표의 7월 15일 진술조서를 보면 4월 17일 새벽 5시 57분에 인양가능성을 이야기 함. 그리고 당시 에어포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인양작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

선행신문 – 박종운

• 최상환(해양경찰청 처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언딘이 어떤회사인지,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과 언딘사이에 맺은 계약은 무엇인지 알고있었는지 질문
- ▶ 참사 직후 증인과 김모 이사관이 쉐비지 업체 선정을 압박했는데 평상시 김모 이사관은 언딘에서 선물을 받는 등 정황으로 인해 유착관계가 의심됨. 여기에 과거 통영에서 선박 충돌사고 발생시 포항에서 사고좌표를 언딘 쪽에 제공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질문
- ▶ 검찰에 유착관계를 부인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고있으며, 좌표정보 알림도 나중에 알았다고 대답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언딘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편의제공 사실을 알았는지 질문
- ▶ 언딘에 대해 아는바가 없으며, 편의제공 사실도 검찰조사당시 알게 되었다고 답변
- ▶ 해경이 구조에 언딘을 선정한 것이 타당했는지 질문(대답하지 않음)
- ▶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라면 동원, 투입되어야 한다고 대답(최상환)

• 박종철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수색구조과장)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계장이 당시 쉼비지업체와 같은 대형계약을 지시 할 수 있는지 질문
- ▶ 중앙구조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구조를 할 때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리베로호는 제대로된 검사를 마치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결정 지시는 누가했는지 질문
- ▶ 중앙구조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공소제기된 상태이므로 개인 입장을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대답
- ▶ 국가제정법상 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일반수용비를 활용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수난 구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방안 연구를 용역을 주었는지 질문
- ▶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아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대답(박종철)
- ▶ 해경 본청은 사무실 14곳을 한국해양구조협회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 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2015년 부터는 정상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는지 질문
- ▶ 묵인보다는 지원을 해주었고, 국감의 지적으로 인해 임대료를 받기 시작 했다고 대답
- ▶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에 창립 축하금 지원, 용역특혜, 사무실 임대, 경찰공무원 파견은 하는 사례가 있는지 질문
- ▶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며 수난구호법에 의한 법정단체이고, 다른 사례는 모른다고 대답

추가신문 – 신현호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신승희학생 문자메세지를 읽음. 이 문자는 10시 1분부터 10시 9분까지 이어짐.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이 언제인지 질문
- ▶ 9시 5분경이라고 대답
- ▶ 증인이 승객들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시간은 언제인지 질문
- ▶ 당시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대답
- ▶ 어떤 상황이든 사고를 인지하고 구조지시를 내리면 승객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임. 그럼 승객들이 희생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간은 언제인지, 생존자 구조에서 희생자 수색으로 태세전환을 결정한 때가 언제인지 질문

- ▶ 언제 전환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일경 총리가 가족분과 논의하여 인양방안을 논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해경측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대답

추가신문 – 이호중

• 김경일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참사 당일 김문홍 증인이 선장, 선원을 찾아서 연락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
- ▶ 당시 기억이 없다고 대답
- ▶ 선원이 구조된 후 조타실에 들어온적 없다고 했었는데, 김경일 정장의 핸드폰 내역을 보면 세월호 2등항해사 김영호와 선원 박경남이 10시 25분, 26분 두 번에 걸쳐 각자의 집에 전화를 하였음. 재판에서도 두 사람은 김경일 증인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선원이 조타실까지 찾아서 정장의 전화를 빌려 전화 할 일이 있는지 질문
- ▶ 그런일 없었다고 대답
- ▶ 정리 - 김경일 증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구조한 인원이 선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추가신문 – 박종운

• 김석균 증인 주요 질문 및 답변

- ▶ 당시 기관 및 구조세력간의 상황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질문
- ▶ 당시 TRS가 주통신 기능을 했는데 폭주하여 혼선이 있었다고 대답
- ▶ 모든 참사에는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대공방송, 선내진입, 민간협력 등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
- ▶ 본청과 다른 기관차원에서 있었다고 대답
- ▶ 당시 지시내용들을 들은바 있었는지 질문
- ▶ 세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

마무리 발언 - 김영오

- 김경일 증인은 평소 부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지 질문
- 9시 44분 8호 TRS 교신 내용을 보면 "현재 승선객이, 그 다음에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갔고 현재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 직원을 땡땡땡 시켜 가지고 안전 유도하게끔 하겠습니다." 에거 땡땡땡은 무엇이며 이곳은 이라는 곳은 어디 인지 질문
- 선박안전법 제2조에 "'감항성'이라 함은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라고 말하며, 선박안전법 제31조 선장의 권한에서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이에 따라 선장이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증인들이 말했음
- 그러나 수난구호법 제18조 1항 "인근 선박등의 구조지원에 따르면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의 선장·기장 등은 조난된 선박등이나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가능한 한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김문홍 증인은 선장이 제일 원망스럽다고 했으나 이는 명백한 구조방치, 방조이며 미필적 살인죄임

종회 20시 57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내용 정리

기록은 2015년 12월14~16일 서울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청문회 진행 내용을 정리한 문서임

제3일차 청문회기본정보

- ▶ 진행일자: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 ▶ 진행장소: 서울YWCA 4층 대강당
- ▶ 참가인원: 90명 (추가 인원 20명 포함)
- ▶ 연대참가: 416연대, 안산세월호시민대책위, 안산시
- ▶ 진행시간: 13시간 12분 (09:30~22:42, 청문회 개회, 종회 선언 기준)
- ▶ 특이사항:
 - ☞ 고엽제전우회 방청권 10개 받아감
 - ☞ 오전 8시 서울YWCA 건물 앞 고엽제전우회 집회 엄마부대 피케팅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1) : 피해자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최일숙 (지원소위원회 위원)	참고인: 희생자 가족 1 희생자 가족 2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주요 내용		

선행신문 – 김선에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사고 내역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 제공 여부에 대해 질문
- ▶ 참사 당시 가족이 진도 사고해역 출입에 대해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 상황보고서와 실제 현장상황과 일치했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피해자들이 겪은 당시 진도의 상황 및 사고 내역에 대한 브리핑이 어땠는가에 대해 질문
- ▶ 참사 당시 진도 사고해역 출입에 대한 통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해경 상황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상황과 일치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과장해서 알려졌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은 에어포켓이 있다는 전제로 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 주요 답변**

- ▶ 참사 당시 가족에게 사고 내역에 대한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바지선에 나와 수색활동을 지켜볼 때어야 그나마 브리핑이 이루어졌음
- ▶ 저녁 6시에 사고해역에 나갔는데 고무보트밖에 확인할 수 없었음
- ▶ 고무보트 몇 대가 있었는데 잠수를 하지 않고 망치로 두드리는 것만 보였으며 실제 상황과 달랐으며 가족들에게 브리핑도 제대로 하지 않음
- ▶ 당시 그곳에 있지 않아서 모름

- **희생자 가족 2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피해자들이 겪은 당시 진도의 상황 및 사고 내역에 대한 브리핑이 어땠는가에 대해 질문
- ▶ 4월 20일에 대통령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질문
- ▶ 해경은 에어포켓이 있다는 전제로 수색을 진행했는데 그 설명을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해경 상황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현장상황과 일치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과장해서 알려줬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2 주요 답변**

- ▶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안내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음
- ▶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고해역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확인은 어려웠음
- ▶ 본인이 봤을 때 실제 상황보다 부풀려져서 정부를 불신하게 됨
- ▶ 에어포켓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고해역에 가족 접근을 통제했는데 국정조사에서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거짓임이 밝혀졌으며 골든타임을 놓친 셈임
- ▶ 당시 서해청장 김수현이 P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협조 요청만 가능하는 얘기만 들었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기 때문임

선행신문 – 쇠일숙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민간 잠수사의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 ▶ 해경 측에서 잠수사의 건강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의사 및 관리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
- ▶ 희생자 시신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정부가 가족보다 먼저 언론에게 보여주고 이들을 통

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

- ▶ 냉동보관소가 생기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보관하고 영안실로 시신 운송 방식과 시신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언딘 리베로호나 금호 바지선에서 민간 잠수사의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 ▶ 희생자 시신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정부가 가족보다 시신을 찍으려는 기자들을 통제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질문
- ▶ 22일에 냉동보관소가 생겼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시신을 보관하고 영안실로 시신 운송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 주요 답변**

- ▶ 식사제공 하는 공간도 비좁았고 숙소라고 준 컨테이너도 4인실이라 비좁았으며 세면시설 및 화장실은 80년대 수준이었음
- ▶ 언론에게 항의하고 안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기자들에 대한 통제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음
- ▶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희생자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족들에게 희생자의 이름을 냉동고에 쓰라고 말했으며 초기에는 냉동고가 없는 엠블런스에 실고 운반함

• **희생자 가족 2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언딘 리베로호나 금호 바지선에서 민간 잠수사의 수색 구조 작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 ▶ 해경 측에서 잠수사의 건강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의사 및 관리자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
- ▶ 희생자 시신이 육지로 올라왔을 때 정부가 가족보다 시신을 찍으려는 기자들을 통제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2 주요 답변**

- ▶ 초기에는 희생자 가족 1이 말한 것처럼 열악했으며 잠수사가 잠을 잘 공간조차 없었는

데 나중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환경개선이 그나마 되었지만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해결한 것은 없었음

- ▶ 의사나 관리자는 없었고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시 헬기로 환자를 실어간 것은 봤음
- ▶ 언론이 시신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었고 해경, 해수부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이에 대해 수차례 항의하니까 그 뒤에 개선됨

○ **희생자 가족 1 발언 :**

- 해양경찰서에서 아들의 시신 사진을 보내줬음
- 사진을 공개할지 망설였음
- 특별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부탁함

가족들 오열

○ **희생자 가족 2 발언 :**

- 아들의 마지막 사진을 보여줌
- 해경이 선내 수색 작업이 단지 본인들만의 안전이 염려되어 하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음
- 국가에게 버림받은 기분이며 특별조사위원회에 올바른 조사를 부탁함

가족들 오열

추가신문 – 권영빈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현재 해수부 및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인양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는지,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현재 해수부 및 정부 인양과정에 가족을 참여시키는지 가족이 참여해야하는 당위성에 대

해 질문

- ▶ 현재 해수부 및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현재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질문

• **희생자 가족 1 주요 답변**

- ▶ 세월호 인양에 관해 충분한 정보는 제공받지 못했고 해수부에 한참을 요구해야 제공받았으며 가족을 인양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음
- ▶ 정부는 동거차도 모니터링단에게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음
- ▶ 해수부는 가족이 인양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지선 탑승을 허용해야 함
- ▶ 무엇을 숨기는지 몰라도 인양 작업을 밤에 함 낮에는 무엇인가를 실어서 나가는데 무엇 인지는 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가족이 인양과정에 참여해야 함

○ **희생자 가족 1 발언 :**

- 정부가 처음에 인양작업을 시작할 때 공기부력제는 위험하다고 말했으나 결국 이 방식을 채택했고 필요없다는 부위를 절단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가족들은 전혀 몰랐고 기사를 보고 알았음
- 배에서 가장 중얼한 것은 용골인데 이 용골이 어디 한 군데 금이 가면 그 배를 들었을 때 부서지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음

○ **이호중 위원 발언 :**

- 참고인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인양작업을 하는 상하이셀비지가 무엇인가를 바깥으로 가지고 내보내고 밤에만 작업한다는 얘기가 나옴
- 당장 특별조사위원회의 직원을 현장으로 보내서 상하이셀비지가 현장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물품 중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를 바람

정회 11시 00분

속개 11시 10분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수색현장 구조작업 지원 및 희생자 수습과정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참고인: 민간 잠수사 1 민간 잠수사 2	
추가신문위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장) 최일숙 (지원소위원회 위원)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김선혜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의 현장 상황과 안내자가 있었는지, 사고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
- ▶ 인터넷에서 확인하거나 해경에서 말하는 물때와 현장의 상황은 달랐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과 정부에서 보고한 500~600명의 잠수 인력과 실제 현장에서 작업했던 잠수인력과의 차이와 고정되지 않은 P정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가족의 의문사항인데 잠수사들은 당시 그날의 작업을 클리어 했다고 말했는데 온전히 그 작업을 마친 것이 맞는지와 사고 직후 수중 수색 전문가로서 취했어야 하는 조치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의 현장 상황과 안내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던 물때와 현장의 상황은 달랐는지에 대해 질문

- ▶ 참고인들이 어떤 작업을 수행했고 P정이 고정되지 않아서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과 정부에서 보고한 500~600명의 잠수 인력과 실제 현장에서 작업했던 잠수인력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 ▶ 사고 직후 전문가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 주요 답변**

- ▶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안내자가 없었음
- ▶ 해경 정장이 물때가 났다고 방송해서 잠수 작업하려고 했는데 물때가 세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현장과는 정보가 달라서 당시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작업을 수행함
- ▶ 수중 수색 작업을 하는데 바지선은 연결되어 고정이 되어있었지만 P정이 세월호와 고정이 안되어 있고 연결된 가이드라인은 서로 엉키거나 끊어져서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음
- ▶ 실제로 500명 정도의 잠수인력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잠수 포인트가 총 6군데 였으며 하루에 그 만큼의 인력이 수중 수색을 할 수는 없음
- ▶ 침몰하겠다고 느끼면 가이드라인을 어딘가에라도 연결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허비했음

• **민간 잠수사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해경과 정부에서 보고한 500~600명의 잠수 인력과 실제 현장에서 작업했던 잠수인력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
- ▶ 가족의 의문사항인데 잠수사들은 당시 그날의 작업을 클리어 했다고 말했는데 희생자가 다음날에도 나왔는데 참고인에게 클리어의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1 주요 답변**

- ▶ 본인이 본 바로는 7~8명 정도밖에 수중 수색 작업을 하지 않았고 매우 피곤해보이는 모습이었음
- ▶ 클리어는 시신을 모두 수습하고 모든 집기 가구를 끌어낼 때 사용하는 개념이며 민간잠수사들은 장소에 따라 순서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해경의 요구로 수색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음

선행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수색장소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숙식, 의료지원, 수색 작업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가 1일 4회 잠수를 할 정도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 해경이 민간잠수사에게 수색장소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잠수사 작업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숙식과 의료 지원은 없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심리 치료는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 주요 답변

- ▶ 수색 장소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며 바지선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들었으며 리베로호가 오고 나서 해경과 해군도 안정적으로 수색 작업을 수행하게 됨
- ▶ 식사도 제대로 못했고, 모포를 덮고 자는 수준이었으며 초기에는 잠수병을 치료하는 챔버가 있어야했는데 챔버도 없었음
- ▶ 심리 치료는 받지 않았음

• 민간 잠수사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민간잠수사가 1일 4회 잠수를 할 정도로 무리하게 수색 작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질문
- ▶ 숙식과 의료 지원은 없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심리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1 주요 답변

- ▶ 본인이 수습을 하고싶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시신을 발견하고 그만 두게 되면 다른 잠수사들이 찾을 수 없음 후자는 해경이 일방적으로 해경청장이 가족들에게 잡혀있다는 이유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작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 ▶ 5월 6일 이후에 의사는 있었지만 코를 뚫어주는 약이 잠수사에겐 중요했는데 그 약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었고 있어도 사용하려고 의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음
- ▶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가족들이 고생했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을 때 그때서야 치유가 되었음

○ **민간 잠수사 2 발언 :**

- 아직까지 세월호에서 올라오지 못한 아홉 구의 실종자들이 가슴속에 있음
- 가족들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얘기도 들으면서 열심히 수중 수색 작업에 임했지만 끝까지 하지 못해서 미안함
- 추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작업할 것임

○ **민간 잠수사 1 발언 :**

- 잠수사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음
- 당시 11구가 남았는데 왜 우리가 쫓겨났는지 궁금함
- 고위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은게 우리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왜 고위 공무원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음

추가신문 – 칩일숙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수중 수색 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과 해경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 기록에 기재된 수중 수색 횟수보다 더 많이 수중 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질문
- ▶ 보령호를 바지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활용하여 작업에 도움이 되는지와 가이드라인을 더 설치해서 더 많은 인력이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가이드라인의 중요성과 해경이 가이드라인을 설치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

- ▶ 보령호가 와서 수중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대기가 되었다는데 바지선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활용은 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질문
- ▶ 가이드라인을 더 설치해서 수중 수색 작업 포인트를 늘리면 더 많은 인원이 작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 주요 답변**

- ▶ 배가 침몰하기전에 로프를 연결했다면 수중 수색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며 해경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됨
- ▶ 보령호가 설사 왔어도 당시 해경이나 해군이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수 없었고 민간잠수사들은 수중 수색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비 준비를 하는데 들일 여력이 없음
- ▶ 가이드라인이 많아지면 엉키고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작업 할 수 없음

- **민간 잠수사 1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1일 4회 수중 수색을 했다고 했는데 기록에는 1일 2회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1 주요 답변**

- ▶ 실제 수중 수색을 수행한 횟수와 기록에 기재된 횟수가 다르며 원래 잠수사, 감독관, 슈퍼바이저 사인 3개가 있어야 하는데 있는 기록인지 궁금하고 언딘, 해경 다 내용이 다름

추가신문 – 박중운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당시의 민간, 산업 잠수사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민간잠수사)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당시의 민간, 산업 잠수사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 **민간 잠수사 2 주요 답변**

- ▶ 정확히 알 수 없음

정회 12시 30분

속개 14시 00분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2) : 해양수산부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증 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우예종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류희인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이석태 (위원장)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김선혜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범정부대책본부에서 논의를 해서 현장 상황에 대응한 이유에 대한 질문
- ▶ 해경의 P정이 고정되어있었으며 가이드라인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
- ▶ 참사 초기 시신을 수습하는데 언론을 통제하지 않아 교통에 혼란을 초래했던 점에 대해 질문
- ▶ 구조전문가와 수중 수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질문
- ▶ 구조 상황 오보와 언론의 과잉취재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질문

•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당시 상황보고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범정부대책본부 회의록에 의하면 참사 당시 희생자 수습 과정, 수색 과정, 피해자 지원 등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때서야 범정부대책본부에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 해경 기관보고에 보고된 과장된 사고 당일 잠수요원과 다르게 대조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잠수사 등이 수색 작업을 했던 것을 보면 참사 당일 심해잠수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거나 물 위에서 고정할 수 있는 바지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
- ▶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범정부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범정부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문
- ▶ 참사 초기에 언론이 길을 막았는데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질문
- ▶ 에어포켓에 공기 주입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구조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 참사 당시에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다면 수색이 지체되는 일이 없을 것 인지에 대해 질문
- ▶ 언론이 구조 상황 오보와 과잉취재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국민안전처에 대한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 100명이 있었고 이들이 피해자 구조 및 구난에 대한 정보제공, 행정업무 장례지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보고 받았을 때 심각한 것으로 인지했고 국방부, 주변 어선에게 구조 협조 요청을 지시함.
-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안전행정부는 안전행정부대로 정부부처 각자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구조, 피해자 지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범정부대책본부가 있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음.
- ▶ 첫날은 해역의 특수성이 인식이 안 되었을 수 있고 강한 조류 때문에 선내 진입이 어려웠다는 보고를 받음 그 당시에는 바지선이나 심해잠수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생각함.
- ▶ 해양 사고이기 때문에 총리가 해양수산부 장관인 본인에게 범정부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긴 것임.
- ▶ 교통이 통제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고 경찰병력 동원해서 통로를 확보하라고 지시했

음.

- ▶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생각했음.
- ▶ 오보에 관해서는 범정부대책본부의 해양수산부 대변인, 해경 대변인, 문화부의 소통실을 통해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잉 취재는 삼가라고 여러 번 요청했음.
- ▶ 많은 인원이 투입되다 보면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가슴 아파하면서 도와주려는 자세로 일하려고 했다고 들었음.

• **우예종(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당시 9시 30분부터 10시 41분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9시 30분 심각 경보를 발령했는데 회의 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우예종 주요 답변**

- ▶ 선박의 상태, 인원, 주변 구조세력 현황을 알아보고 각 부서별로 업무 분담을 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 사태를 전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음.

선행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무리한 시신 수습 요구로 인한 민간잠수사 사망을 초래했고 민간잠수사의 수색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 열악했던 것에 대해 질문
- ▶ 수색 인원 투입에 대한 과장 보고와 유실망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책임과 일어난 이유에 대해 질문
- ▶ 희생자의 신원확인, 검안절차, 희생자 이동을 위한 냉동고 준비 방식이 언제 이루어졌고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무리한 시신 수습 요구로 인한 잠수사 사망에 대해 질문
- ▶ 침몰 하면서 상황 상 급박하게 수중 수색이 필요했는데 범대본 회의에서는 나왔던 논의에 대해 질문
- ▶ 160명 수색 인원 투입했다는 과장 보고는 누구 책임이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질문
- ▶ 잠수사 등 수색세력을 지원이 부실하고 해경, 해군 보다 열악했다는 것에 대해 질문
- ▶ 희생자 유실망 작업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8일까지 29명의 희생자가 수습되었는데 희생자의 신원확인, 검안절차, 희생자 이동을 위한 냉동고 준비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질문
- ▶ 해양사고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증인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2014년 4월 16일 밤 10시 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매뉴얼로 희생자의 신원확인, 검안절차, 희생자 이동, 냉동고 준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5월 6일, 5월 30일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책임을 통감함
- ▶ 가이드라인 설치 위치를 어떻게 더 늘려야하는지에 대한 회의를 했음
- ▶ 궁극적으로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본인의 책임이며 160명 투입은 동원세력을 의미한 것인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인정함
- ▶ 해경과 해군의 잠수 가능 인력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 브리핑할 때는 정조기에는 몇 명 몇 회 들어갔는지 보고했음
- ▶ 해경, 해군보다 열악했던 것은 인정하며 처음엔 부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했다고 답함
- ▶ 점차적으로 유실망 TF팀을 만드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정확한 상황은 모름
- ▶ 팽목항에 냉동고를 설치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정도 지나서였고 처음에 팽목항에 그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있어서 목포병원에 이송했다가 팽목항에 안치소 설치를 지시했고 시신수습을 지시함.
- ▶ 희생자의 신원확인, 검안절차, 희생자 이동, 냉동고 준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아도 대비되었을 것으로 생각했고 목포병원에 이송시킨 것이 충분하지 않아 점차적으로 대비했음.

• 우예종(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희생자 유실망 작업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해 질문

• 우예종 주요 답변

- ▶ 과장 보고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해경과 해군의 잠수 가능 인력을 표기한 것이고 실제 브리핑할 때는 정조기에는 몇 명 몇 회 들어갔는지 보고했음

- ▶ 댛자망 해역에 설치됐고 유실에 대해서는 댛자망 선주들에게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했음

추가신문 – 권영빈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 해수부 상황실 책임자인 우예종이 상황실을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황실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에 대해 보고는 어떻게 받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
- ▶ 인명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보고서가 어떻게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행부로 나오게 되었는지, 누가 최종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당시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외부로 내보낸 과장 실장은 징계를 받았는지에 받았다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해양수산부는 상황보고서를 여러 보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구조인력에 대한 산출 기준과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전원구조의 오보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당시 해수부 상황실 책임자인 우예종은 세월호가 침몰된 것을 진도VTS가 해수부에 알린 시각이 09시 02분이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된 시각은 09시 27분이었고 상황실도 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너무 늦게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상황실에서도 세월호에 대해 보고는 어떻게 받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증인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4월 16일에 해양수산부에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해양수산부는 상황보고서를 여러 보 만든 이유가 무엇이며 구조인력에 대한 산출 기준과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전원구조의 오보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
- ▶ 당시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외부로 내보낸 과장 실장은 징계를 받았는지에 받았다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우예종에게 직접 보고받지 않았고 치안정책관, 비서관에게 보고 받고 차관과 통화했으며 상황 자체는 심각하게 봤음
- ▶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받기는 했지만 보지는 않았고 구두로 보고만 받았음
- ▶ 해당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함

- ▶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필요하다면 징계 사항에 대해 알려주겠음
 - ▶ 급박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함
- **우예종(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인명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상황보고서가 어떻게 청와대, 국무총리실, 안행부로 나오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우예종이 최종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
 - ▶ 참사 당시의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보고서를 왜 사태를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상황보고서만 급하게 만들어서 외부에 보냈어야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당시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를 외부로 내보낸 과장 실장은 징계를 받았는지에 받았다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허위 상황보고서를 유출한 과장급 상황실장이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 통보에서 확인된 것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 질문
 - ▶ 허위 상황보고서를 유출한 과장급 상황실장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우예종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간주함

- **우예종 주요 답변**
 - ▶ 처음에는 “대형사고로 갈 수도 있겠다” 라는 보고라고 들었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으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보고는 올라오지 않아서 결국 10시 10분에 침몰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됨
 - ▶ 본인이 그 상황보고서를 외부로 보내지 않았으며 당시 과장급 상황실장이 보냈는데 본인은 이 상황보고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것을 인정함
 - ▶ 정보는 정확한 것도 필요하고 신속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음
 - ▶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답했지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추가신문 – 류익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재난 대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와 이것이 국가실패 연결되는 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법령에 따르면 중앙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어야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있어야 하는데 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대체했는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국가실패는 아닌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다 부정하지는 않지만 세월호 사태는 특별했으며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만들어진 것임.

추가신문 – 이호중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책임주체도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서해청장실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2014년 4월 16일 밤 10시 20분에 했는데 회의시간이 1시간인데 누가 소집했으며 각 정부부처가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으며 회의 자료가 없는 이유와 회의록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에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수중 수색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와 대통령은 현장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7일 새벽 6시 10분의 정확한 상황보고 정보를 청와대에는 1시간 간격으로 보고했는데 왜 가족과 국민은 제외시켰는지에 대해 질문
- ▶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참사 조사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책임주체도 명확히 기재가 되지 않은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서해청장실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2014년 4월 16일 밤 10시 20분에 했는데 회의시간이 1시간인데 누가 소집했으며 각 정부부처가 모여서 어떤 논의를 했으며 회의 자료가 없는 이유와 회의록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에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수중 수색 작업을 하지 않은 이유와 그 이유가 대통령이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대통령이 2014년 4월 17일에 방문했을 때 상황보고는 했는지와 해경에게 보고받은 상태

로 대통령이 현장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대통령이 왔던 당시에 김석균 해경청장이 동원세력 500명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왜 가만히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7일 새벽 6시 10분의 정확한 상황보고 정보를 청와대에는 1시간 간격으로 보고했는데 왜 가족과 국민은 제외시켰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상황실에서 이런 형식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조언할 것임
- ▶ 범정부대책회의 회의 내용은 구조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었고 회의자료는 없었음
- ▶ 대통령과 관련이 없으며 기억이 나지 않음
- ▶ 대통령은 상황을 알고 왔고 말씀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으며 어느정도 상황을 알고도 질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음
- ▶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 ▶ 미처 가족과 국민에게 상황을 알리는 일을 챙기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며 시정을 지시했음

• **우예종(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허위로 작성된 상황보고서에는 책임주체도 명확히 기재가 되지않은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서해청장실에서 범정부대책회의를 2014년 4월 16일 밤 10시 20분에 했는데 회의시간이 1시간인데 회의록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우예종 주요 답변**

- ▶ 다른 사고 때도 이런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 ▶ 회의자료 문서로 된 것은 없었음

○ **민간 잠수사 1 발언 :**

- 아까 고위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함
- 7월 11일에 해고 당했고 통보 방식도 작업 방식이 다르니 문자로 7월 9일에 받았는데 달라진 작업 방식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에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판단인지 설명이 필요함

추가신문 – 이석태 위원장

• **주요 질문 내용**

- ▶ 민간잠수사의 말씀을 대신 질문하며 2014년 7월에 해고되었다고 말하는데 보고는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를 해고 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우예중(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2014년 7월에 해고되었다고 말하는데 보고는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를 해고 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주요 답변**

- ▶ 잠수팀을 바꾼다는 보고 내용을 들은 적이 있음
- ▶ 수색 작업의 진도가 더딘 상황이었고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수용했음

○ **이호중 위원 발언 :**

- 위원장님이 제재의 말씀을 하는데 끼어들지 말라는 표현으로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음
-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참사 조사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주영 발언 :**

- 책임질 수는 없지만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참사 조사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도울 것임

정회 17시 35분

속개 17시 55분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수색현장 구조작업 지원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선행신문위원: 김선혜 (지원소위원회 위원장)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최일숙 (지원소위원회 위원)	증 인: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배병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 장진홍 (해군작전사령부해난구조대장) 정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추가신문위원: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 언제부터 신원 확인에 관여했으며 참사 당일보다 늦은 사망 기준에 대해 질문
- ▶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확인을 요청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신원 확인 및 희생자 인도절차에 대한 안내가 가족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 절차를 했는지 적절하게 시신에 대한 절차와 언론에 의해 혼란스러웠던 현장 상황에 대한 생각에 대해 질문
- ▶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시신에 대한 개인 식별이나 예우 등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정낙은(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은 진도에 가서 몇 명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 언제부터 신원 확인에 관여했으며 왜 참사 당일보다 늦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사망을 얘기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질문
- ▶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확인을 요청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신원 확인 및 희생자 인도절차에 대한 안내가 가족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 절차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초기 시신이 흰 천에 덮여서 올라오거나 얼굴만 보여줬다거나 안 보여주고 모포로 옮겨 갔다고 초기에 검안 과정이 혼란스러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냉동 컨테이너는 언제 누가 설치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냉동고에 희생자의 사인 비슷하게 이름을 쓰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시신이 뒤바뀐 사건이 있었는데 바꾸니 시신이 안산으로 이동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시신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찍고 어떤 경우에는 시신을 덮은 천을 벗기는 경우도 통제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시신과 관계없는 공무원이나 기자들이 관여해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신이 바뀌는 상황이 있었을 것에 대해 질문
- ▶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정에서 시신에 대한 개인 식별이나 예우 등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정낙은 주요 답변**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코리아DVI 희생자관리단이 움직이게 되어있는데 다른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과 연합해서 목포와 팽목항에 내려갔음
- ▶ 2014년 4월 16일 야간에 긴급회의를 했는데 참사 당일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현지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희생자관리단이 관여하는 시기는 사망을 인정하는 시기이고 아직 그 당시가 사망을 인정할 시기라고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 원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뒤에서 지원했음
- ▶ 에어포켓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사망을 공식화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분적으로 관여했을 수 밖에 없었음
- ▶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확인을 요청은 2014년 4월 18일에 했음
- ▶ 대형참사가 나면 사고 최단 시간내에 유가족들에게 희생자에 대한 절차를 설명하는 설명

회를 요청하는데 당시에는 정서에 변화가 있었고 유가족 대표에게 설명회를 몇 차례 요청했는데 실패했고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당시 현장을 관리하는 기관들에 설명회 요청을 했지만 지금은 어떤 기관에다가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음

- ▶ 대형참사에서 시신에 대해 그렇게 대처하는 것은 잘못되었고 유가족지원팀이 시신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설명 과정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함
- ▶ 냉동 컨테이너는 필수이며 설치 요청을 했고 설치까지는 4~5일 정도 걸렸는데 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희생자관리단은 집행권한이 없음
- ▶ 시신 확인할 때 부모들이 이름을 쓰게 했다는 것은 우리 업무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며 냉동 보관소에 모든 정보는 우리 정보수집팀만이 접근할 수 있음
- ▶ 우리가 시신관리에 관여하기 전에 해경이 관리했고 3건의 시신이 뒤바뀌는 일이 생겼으며 우리가 관리하고 나서 2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시신의 부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산으로 가겠다고 해서 이동 시켜드렸는데, 단 가검안서를 받아서 가는 사람은 희생자관리단이 신원확인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장례절차를 할 수 없다고 서약서를 받고 이동시켜드렸는데 결국 그 시신이 그 부모의 자제분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렸고 전달 과정에서 그 시신이 그 부모의 자제분이라고 잘못 전달되었고 하지만 2~3주 뒤에 다시 신원확인을 했으며 이것이 총 5번의 시신 관련 사건에 대한 배경설명임
- ▶ 들었고 우리 정보수집팀이라면 시신이라는 이유로 공공의 호기심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교육시키며 이러한 사항이 초기에는 미미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함
- ▶ 시신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함
- ▶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희생자 관리단 같은 조직을 상설화해서 대형참사가 났을 때 응당 개인 식별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 하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 관리된 상태 하에서 서로 연합해서 해결하면 바람직한 시스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함

• **김수현(서해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초창기 가족들이 희생자를 확인하고 싶어했는데 기자들이 먼저 왔었는데 관계자 이외에 통제를 했어야 했고 이에 대해 해경은 통제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김수현 주요 답변**

- ▶ 시신을 사고현장에서 팽목항까지 와서 임시안치소에 놓게 되면 119와 육상에 있는 진도

경찰서에서 통제했던 것으로 기억함

선행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실국장들에게 상주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장급을 교대 파견하는 등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교대 주기가 너무 짧지는 않았는지 인수인계 절차나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에 참사 현장에 도착한 병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전남대학이나 조선대병원이 왔었고 일부 국립병원에서는 연락을 못받고 TV를 보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간의 협진 체제를 구축하거나 병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해주는 심리치료사가 가족 중 한사람에 의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심리치료사들에게 주의사항이나 매뉴얼을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에 대한 의료지원과 무리한 작업을 재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17일 장례 지원 대책반을 만들었고 지원인력을 현장에 파견했는지 여부와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포함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시행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국무총리는 각 부처의 실국장들에게 상주 근무를 하도록 지시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장급을 교대 파견하는 등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교대 주기가 어느 정도 되었고 인수인계 절차나 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326회 국정조사록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에 의하면 교대 주기도 2박 3일 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 파악도 안 되어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본부장인 차관에게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에 참사 현장에 도착한 병원들이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했는데 전남대학이나 조선대병원이 왔었고 일부 국립병원에서는 연락을 못받고 TV를 보고 온 경우도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간의 협진 체제를 구축하거나 병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가족들의 심리치료를 해주는 심리치료사가 가족 중 한사람에 의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는데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고 말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심리치료사들에게 주의사항이나 매뉴얼을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재난 대처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급박한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재난전문가나 관련자가 투입되지 않고 아무 경험이 없는 증인 세 사람이 의료 대응 관련된 지휘권이나 책임을 맡은 것이 유가족에게는 불만사항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에는 잠수병 전문 군의관, 응급의학 전문의 각 1인이 상주해서 의료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잠수사가 사망한 2014년 5월 6일 이후 이를 뒤에 그렇게 조치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전에는 의료 지원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
- ▶ 그 이전까지 의료지원이 없었다면 잠수사들이 팽목항에 많이 몰려온다면 선제적으로 의료 지원을 제공했어야 했고 5월 6일까지 민간잠수사들의 잠수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의료 지원이 없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
- ▶ 무리한 잠수에 대해서 잠수 금지 처방이나 요양 방법 지도를 했는지와 수색 현장에서 잠수사에 대한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했는지에 대해 질문
- ▶ 현재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질문

• **이영찬 주요 답변**

- ▶ 당초에는 주기가 짧았으며 진도 팽목항, 진도군청에 파견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교대 한 것이 아니라 2~3명 정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배치한 것으로 기억함
- ▶ 회의 자료 철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인계되었다고 생각함
- ▶ 김명연 의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약간 주기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기억함
- ▶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된 체제를 만들어 놓은 적은 없음
- ▶ 초기에 심리상담사가 많이 부족했고 의사들이 심리상담사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려서 교육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보건복지부가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음
- ▶ 경험이 없음
- ▶ 재난전문가에 대해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것은 응급의료와 장례 지원이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현장에 가있었고 의사인 공무원도 파견했음
- ▶ 2014년 5월 8일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잠수사들에 어떤 부분은 관여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때까지는 해경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해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

음

- ▶ 민간잠수사에 대한 의료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고 잠수병 전문의는 해경이나 해군에 있었음
- ▶ 당시 하루 잠수 횟수에 대한 규정은 해경과 해군에 있었던 것 같고 상황 자체가 급박했기 때문에 매뉴얼보다도 더 많이 잠수한 것으로 이해했으며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설문지를 작성하게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선별했고 그 중에서 민간병원 진료를 원하는 사람은 7명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권영빈 위원 발언 :

- 잠수사에 대한 조사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함

- ▶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내년에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도 확대될 것임
- **배병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보건복지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와 같은 사고수습체계를 마련한 것이 언제이며 보건복지부 사고수습대책본부 사무실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재난 대처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이나 해군에게 협조요청을 언제 받았으며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배병준 주요 답변**
 - ▶ 2014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22일부터 인원이 배치되었으며 그 이전에 진도 현장에 장례지원반과 응급의료지원반은 17일에 가동되었음
 - ▶ 경험이 없음
 - ▶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사고 이후에 응급의학 전문의를 바지선에 배치해서 군의관이 잠수사에 대해서 의료 지원해달라 까지 말하다가 말이 끊김
 - ▶ 협조 요청은 5월 7일 범대본 회의 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실제로 배치 된 것은 5월 8일 부터임
- **김주영(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보건복지부 사고수습대책본부 사무실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재난 대처에 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보건복지부는 2014년 4월 17일 장례 지원 대책반을 만들었고 지원인력을 현장에 파견했

는지 여부와 어떤 계획을 수립했고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시행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협조요청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

• 김주영 주요 답변

- ▶ 사고수습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에 있었으며 진도 현장에는 응급의료, 심리지원, 장례지원팀이 있었는데 장례 쪽이 안산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는 5월 달에는 인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함
- ▶ 경험이 없음
- ▶ 2014년 4월 17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내려진 임무가 임시안치소 설치와 장례식장에 대한 안내였고 각 부처마다 업무가 배분되어있었는데 배분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통합할 필요를 느꼈고 4월 19일에 합동으로 범대본 회의를 했음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야기를 범대본 쪽에 했는데 각 부처가 흩어져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선행신문 - 최일숙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온마음센터의 이용 실적이 좋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으며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와 개선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참사 피해자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온마음센터의 이용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개선이 필요했으며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온마음센터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질의
- ▶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이 각각의 대책에 대해 유가족이 어떤 도움을 바라는지 사전 조사했는지에 대해 질의

- **이영찬 주요 답변**

- ▶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충분히 조사했고 이들 중 지원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서울정신병원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까지 만들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 보건복지부를 떠난지 1년이 돼서 잘 모르겠음
- ▶ 담당하는 사람은 건강정책국의 정신보건정책과장임

○ **최일숙 위원 발언 :**

- ▶ 그 사람에게 온마음센터의 이용 실태와 이용 실적이 좋지 못한 이유에 대한 보고하기를 바람

- ▶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고 소득과 관련해서는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했고 심리 상담 부분도 지원했음

- **배병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이 각각의 대책에 대해 유가족이 어떤 도움을 바라는지 사전 조사했는지에 대해 질의

- **배병준 주요 답변**

- ▶ 긴급복지지원은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했고 단순히 직계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생계를 같이 하는 이모 등까지 확대했으며 의사자 지정은 어떻게 하며 기초 생활 수급자 특례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을 충분히 했으며 가족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를 5월부터 시행했음

선행신문 – 최일숙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출동 지시를 09시 34분에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04분인데 출동이 늦은 이유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 07시에 국방부 상황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인 4월 16일 09시 04분의 조치 사항으로 '3한대 가용 함정, 항공기 현장 투입, 구조 작전 수행' 이라고 보고했는데 증언한 것처럼 해군은 한 일이 하잠색을 설치한 것뿐이며 투입된 항공기와 함정이 구조

에 임하지 않은 것인데 왜 가용 함정과 항공기가 현장 투입되었다고 표현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자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함정 26대, 항공기 23대, 구조대 366명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수색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인지에 대해 질문
- ▶ 리프트 백을 설치한 것에 대한 논의는 누가 시작했으며 설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 ▶ 에어포켓 설치 지시 주체가 김판과 제독과 해경청장이라고 하는데 김판규 제독 개인의 결정인지 여부를 알고 있는 지, 증인이 에어포켓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수중 수색 작업을 할 때 민간잠수사와 해경, 해군의 하루당 수중 수색 횟수의 차이에 대해 질문
- ▶ 잠수현장의 관리감독 및 민간잠수사 관리는 해경과 해군이 함께 맡았는지 그리고 2014년 5월 6일 민간잠수사 사망 전에 민간잠수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들이 아까 증언하듯이 코막힘 약도 제대로 안 준다고 말했고 잠수를 하다 보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기 마련인데 혈압이 높다고 잠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잠수규칙이나 이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예산은 어느 부처에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
- ▶ 미국 본햄리차드호가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해군은 미 7함대에 구조 지원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장진홍(해군작전사령부해난구조대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국방부 재난 대책 본부에서 작성해서 발표한 4월 16일 오후 5시 상황보고서에 의하면 해군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한 정확한 시각과 도착 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참사 당일에 해난구조대(SSU)와 UDT가 구조 현장에 도착한 정확한 시간은 몇 시이고, 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증인이 현장 지휘관으로서 해경으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출동 지시를 몇 시에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출동 지시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04분인데 왜 늦는지에 대해 질문
- ▶ 출동 시간을 줄여서 구조 활동을 빠르게 하려면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 ▶ 바뀌어 있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는지에 대해 질문

- ▶ 9시 34분은 승객 다수가 탈출하지 못한 상황인데 도착을 늦게 했다면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전달 받았는지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
- ▶ 링스 헬기가 9시 40분에 출동해서 10시 1분에 도착했고 구조 방송이 가능한지와 불가능했다면 왜 링스 헬기가 왔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군이 어렵게 설치한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수중 수색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민간잠수사가 잘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 07시에 국방부 상황보고서를 보면 참사 당일인 4월 16일 09시 04분의 조치 사항으로 '3한대 가용 함정, 항공기 현장 투입, 구조 작전 수행' 이라고 보고했는데 증언한 것처럼 해군은 한 일이 하잠색을 설치한 것뿐이며 투입된 항공기와 함정이 구조에 임하지 않은 것인데 왜 가용 함정과 항공기가 현장 투입되었다고 포현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재난 관리실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황보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
- ▶ SSU와 UDT가 구조와 수색에 투입이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색에 임했는지에 대해 질문
- ▶ 2014년 4월 17일자 국방부의 보고서에는 함정 26대, 항공기 23대, 구조대 366명이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수색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인지에 대해 질문
- ▶ 리프트 백을 설치한 것에 대한 논의는 누가 시작했으며 설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 ▶ 에어포켓 작업을 지시받은 사람은 에어포켓 설치가 김판규 제독과 해경청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김판규 제독 개인의 결정인지 여부를 알고 있는 지, 증인이 에어포켓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수중 수색 작업을 할 때 민간잠수사는 정조기 때 무리하게 하루에 여러 번 잠수를 했다고 말했는데 해경과 해군은 어땠는지에 대해 질문
- ▶ 미국 해군의 경우 잠수를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잠수현장의 관리감독 및 민간잠수사 관리는 해경과 해군이 함께 맡았는지 그리고 2014년 5월 6일 민간잠수사 사망 전에 민간잠수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들이 아까 증언하듯이 코막힘 약도 제대로 안 준다고 말했고 잠수를 하다 보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기 마련인데 혈압이 높다고 잠수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들에게 잠수규칙이나 관련 교육을 하거나 민간잠수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잠수사안전지원단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예산은 국방부에서 지급되었는지 해수부에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 및 그 사항에 대해 확인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 보고 요청
- ▶ 2014년 4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미국 본햄리차드호에서 구조 및 수색작업을 지원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들이 어떤 구조 활동을 언제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들이 어떤 구조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해군은 미 7함대에 구조 지원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

• **장진홍(해군작전사령부해난구조대장) 주요 답변**

- ▶ 공식자료에 의하면 도착한 시간은 12시 쯤이며 상급제대에서 승객들이 침수되었다는 전파를 받고 제일 빠른 시간에 가서 탈출하고 있는 승객을 구조하라는 임무로 지시를 받고 응급구조사, 항공구조사를 대동해서 현장에 갔는데 이미 배가 뒤집혀 있는 상태로 침수가 되어서 아무도 구조하지 못함
- ▶ 수난구호법 및 재난안전법에 의하면 해경이 주도하고 해군은 지원하는 관계이며 본인은 해군에 참석한 SSU, UDT에 대한 1차적인 책임자로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작업을 했는데 통제는 없었음
- ▶ 9시 34분에 출동 지시를 받았음
- ▶ 1시간 출동 대기 태세로 규정대로 출동 했을 뿐이고 헬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 늦었을 뿐임
- ▶ 바뀌어 있고 이제 육군의 대형 출동헬기가 부대 앞에 상시 대기하고 있음
- ▶ 대형 헬기라서 1시간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림
- ▶ 실제 상황과는 다른 정보 때문에 혼선이 있었고 몇 명이 구조 되었는지도 몰랐음
- ▶ 링스 헬기가 왜 사고 현장에 왔는지는 본인도 소관 부대가 아니라서 모르며 헬기에는 방송 기기가 없음
- ▶ 민간잠수사가 자른 것은 아마 해군이 연결한 하잠색에 추가로 엮인 다른 줄들이었을 것이며 해군은 하잠색을 계속 이용했고 민간잠수사도 최초 잠수를 그것을 이용해서 했음
- ▶ 본인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작성한 문서도 아님
- ▶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
- ▶ 구조와 수색인력을 투입했으며 잠수 방식은 스쿠버 방식을 초기에 사용했고 표면공급식으로 바꾼 시기는 2014년 4월 21일부터 23일로 알고 있으며 스쿠버 방식이 표면공급식

보다 활동하기는 편해서 초기에 스쿠버 방식을 활용함

- ▶ 배에 추가로 해남 구조대가 편성돼서 그 시간에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표시한 것일 뿐이며 표현의 방법일 뿐이며 이 366명은 조를 구분해서 현장투입하고 대기했음
- ▶ 리프트백 설치에 대해서 누가 논의를 시작했는지 모르며 이유 역시 모름
- ▶ 본인이 모르는 사항이며 외국의 사례로 함정에 따라 에어포켓이 형성되는 것이 구조에 도움을 준 적이 있었음
- ▶ 해군도 정조기 때를 보고 수중 수색 작업을 수행했지만 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3교대를 돌아서 계속 작업을 시켰음
- ▶ 미 해군은 맹골수도의 선체 주위의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잠수를 하지 않았음
- ▶ 민간잠수사 관리는 해군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민간잠수사에 군의관을 파견해 잠수 전 검사를 지원한 사례는 있었는데 민간잠수사에 군의관을 파견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려 했지만 민간잠수사가 거부했으며 민간잠수사 사망전에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음
- ▶ 잠수를 하면 혈압이 높게 측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혈압이 높으면 잠수를 쉬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해군은 안전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함
- ▶ 잠수규칙 교육과 민간잠수사안전지원단에 대한 것은 해군이 관여한 사항이 아님
- ▶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서 알지 못하고 권한도 없어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보고할 수는 없고 부대에 위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음
- ▶ 어떤 지원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세이프 가드함이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확인함

정회 20시 05분

속개 20시 25분

대주제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소주제	참사 당시 수색 관련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및 희생자 수습·장례지원 (3) : 해경	
선행신문위원: 최일숙 (지원소위원회 위원) 신현호 (지원소위원회 위원)	증 인: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추가신문위원: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 이호중 (안전사회소위원회 위원)		
주 요 내 용		

선행신문 – 최일숙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각 상황보고서 내용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자료에 의하면 서해청, 목포서, 본청에서 나온 상황보고서가 시차별로 각각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
 - ▶ 해안치안상황처리 매뉴얼 상황보고서 작성법에 맞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처 간의 협조하는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의 수중 수색 역량에 대해 질문
 - ▶ 현재 해경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구조나 수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 허위 보고서 작성자가 감사원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와 실적 위주의 보고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해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본청, 서해청, 목포서 사이에 서로 상황을 파악 할 때 또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 기관에서 각각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각 상황보고서 내용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자료에 의하면 서해청, 목포서, 본청에서 나온 상황보고서가 시차별로 각각 다른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상황을 공유하는 원칙이 있다면 내용이 다를 수가 없기에 하는 질문
- ▶ 해안치안상황처리 매뉴얼에는 상황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평소에 3개의 기관에서 매뉴얼에 맞게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처 간의 협조하는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
- ▶ 해경은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는데 수중 수색은 민간잠수사가 했고 해경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현재 해경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구조나 수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이춘재 주요 답변**

- ▶ 예하 기관에서 올라온 상황을 수집하고 내용을 종합해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올라온 보고서에 전화를 해서 더 확인을 함
- ▶ 상황보고서에 작성된 내용이 본청장, 기타 경비안전국장 등에게 다 보고가 되고 결국 기관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
- ▶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과 대상을 어디까지 보느냐 이런 것에 차이가 있어서 상황보고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
- ▶ 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신속성과 정확성 때문에 상황보고서 작성에 굉장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음
- ▶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7일 7시에 설치했고 해경은 심해 잠수 훈련을 받지 않고 스쿠버 방식에 의해서만 잠수 훈련을 했으며 결국 민간잠수사와 2인 1조로 이루어서 시신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민간 잠수사가 선체에 들어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역할을 분담함.
- ▶ 2014년 참사가 있었던 이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12월에 만들었는데 43명으로 구성되었고 2015년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3개의 특수구조팀을 만들었으며 심해 잠수 훈련과 수중 구조 훈련을 했음

-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본청, 서해청, 목포서 사이에 서로 상황을 파악 할 때 또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 기관에서 각각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각 상황보고서 내용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서해청 상황보고서 2보에 따르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을 전파했는데 보고서 작성자가 감사원에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및 확인해서 보고를 요구함

- **김수현 주요 답변**

- ▶ 보고는 본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하달은 목포서에 지시하고 상황 파악은 현장에 가장 가까운 예하 기관으로부터 올라온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서해청도 상황보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은 기관장에 있는 것임
- ▶ 보고서 작성자인 상황실 근무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이 확인 되지 않았음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본청, 서해청, 목포서 사이에 서로 상황을 파악 할 때 또는 상황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 기관에서 각각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각 상황보고서 내용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목포서 상황보고를 보면 구조 인원만 148명이라는 상황만 보고가 되고 수색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사람들의 위치, 실종 승객이 몇 명인지, 배가 전복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 되어있고 실적 위주로 작성된 상태인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

- **김문홍 주요 답변**

- ▶ 현장에서 올라온 상황을 중심으로 파악한 뒤에 서해청이나 본청에 보고함
- ▶ 목포서도 상황보고서 작성의 최종 책임은 기관장에 있는 것임
- ▶ 정확한 인원이 누계가 안 되었으며 본인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시를 할 수 없었음

선행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해경 상황보고서의 보고는 과장하고 청와대에 한 보고는 사실대로 한 이유에 대해 질문
- ▶ 실제 구조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척이라도 하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에 대해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해경 상황보고서 2보 4월 16일 10시 23분에 나온 참사 초기 구조세력 투입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보다 과장해서 보고했고 청와대 상황실 간 직통전화 내용에는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다르게 작성한 이유에 대해 질문

• 이춘재 주요 답변

- ▶ 이동 중인 세력과 현장에 도착한 세력하고 구분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댐

• 김수현(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상황정보문자시스템 4월 17일자에 보면 3009함에에서 조류가 강한 상태라서 입수가 어렵다고 말하자 서해청 상황실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 입장 있으니 액션이라도 하라는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들어가는 척이라도 하라고 하고 조명탄 발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질문

• 김수현 주요 답변

- ▶ 본인이 저렇게 말한 사실이 없음 부하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하겠음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해경 상황보고서 2보 4월 16일 10시 23분에 나온 참사 초기 구조세력 투입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보다 과장해서 보고했고 청와대 상황실 간 직통전화 내용에는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다르게 작성한 이유에 대해 질문

• 김문홍 주요 답변

- ▶ 당시 현장에서 헬기가 상황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떠 있는건 못 봤고 배는 있었는데 당시 정확히 몇 척이 있었는지 다 세지 못했고 그냥 많이 있었음

**김수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음을 호소
권영빈 위원이 잠시 위원장의 자리에 앉음**

○ 권영빈 위원 발언 :

- 김수현 증인 건강 이상 호소 함
- 119 구급대가 증인대기실에 와있으니 건강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기를 부탁

○ 김수현 발언 :

- 본인에게 먼저 질문을 해주면 감사하겠음

○ 권영빈 위원 발언

- 건강 체크 받고 잠시 쉬고 들어오시길 바람 신문하는 사람도 증인 것만 추출해서 질문할 수 없음

김수현 증인석에서 퇴장

선형신문 – 신현호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상황실의 문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며 결재되는지에 대해 질문
- ▶ 민간잠수사를 초기에 의료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 10시 10분, 15분에 123정장에게 선내 진입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감사원의 해경 차장 최상환의 답변서에 의하면 동원세력, 구조세력과 관련해서 해경 6보는 상황보고서에 수색세력만 반영해서 작성했으나 7보와 8보는 현장 도착세력뿐만 아니라 이동 세력을 포함한 동원세력을 기재 작성한 것이 작성자 변동에 따른 실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와 상황실에서는 문서가 어떤 식으로 작성돼서 결재가 되는지에 대해 질문
- ▶ 의료인은 지원 요청이 와서 5월 8일에 배치했고 잠수사들은 4월 17일부터 18일에 투입되었는데 해경에서 보건복지부에 해군이나 해경과 유사하게 민간잠수사를 위한 의료인

지원을 초기에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

• **이춘재 주요 답변**

- ▶ 부실장급이 작성을 해서 실장에게 보고하고 실장이 사인을 하고 현장에서 그 위에 과장이나 국장 청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실무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처리하다 보니 다소 그런 부분이 확인 안 된 것 같음
- ▶ 선상에는 의사 말고 응급구조사가 있었고 10분 이내 거리에 해군 청해진 함정 등 해군 함에 잠수 군의관이 있었음 그리고 옆에 전라남도 병원 선이 대기함 처음엔 이렇게 운영함 잠수하고 올라와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군함정에 이동해서 치료하는 지원은 했으며 완벽하진 않았고 의료지원 개선을 일찍 하지 않은 것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함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학생들이 10시 10분, 15분까지는 생존해 있었는데 123정장에게 선내 진입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 **김문홍 주요 답변**

- ▶ 본인은 상황실에 기본적인 조치나 필요한 것은 했는데 이런 아쉬운 점은 속죄하는 마음이며 선장이 왜 선내 진입하지 않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음

○ **권영빈 위원 발언 :**

- 김수현 증인 혈압이 높아서 조금 쉬다가 들어온다고 함
- 증인들에게 신문을 하다가 못한 것은 이호중 위원이 신문할 것임
- 방청객 여러분들이 청문회를 보면서 특정 증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서에 작성해서 특별조사위원회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음

추가신문 – 이호중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감사원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감사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하는 것이며 근거조항을 묻는 것은 아님

• 김문홍 주요 답변

- ▶ 징계조항 56조에 의거해서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았고 근거 조항 외에는 할 말이 없음

○ 김문홍 발언 :

- 진상규명 쪽으론 이호중 위원이 물을 것은 다 물어본 것으로 알고 김수현 증인에게 묻다가 위원장님의 제제를 받고 중단된 것 기억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제기

○ 권영빈 위원 발언 :

- 증인의 호소는 이해했으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절차에서 완전히 끝나야 신문 절차가 끝나는 것임
- 차분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문홍 발언 :

- 우리들 일정이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마지막에 해야 될 보건복지부와 해군들은 다 보내고 우리만 남겨둔 저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불만 호소

○ 권영빈 위원 발언 :

-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은 죄송하지만 청문회를 마무리할 때 까지 절차에 응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수현 증인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갔음 김수현 증인은 신문에 참여 할 수 없음을 이호중 위원은 염두해두길 바람

김수현 응급실로 이동 더 이상 신문에 참여하지 않음

추가신문 – 이호중 위원

▶ 주요 질문 내용

- ▶ 감사원의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해 질문
- ▶ 상황 파악에 대한 노력과 적절한 지시 및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
- ▶ 해경이 구조에 대한 국제기구의 회원 국가로서 해경은 구조 조직체계를 다루는 대형해선 사고매뉴얼이 없고 이에 준하는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법에 규정한 대로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 서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전 함정 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출동해서 가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질문
- ▶ 김경일 정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의거해서 해양조난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소방대원보다 더 엄격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김경일 정장은 해양경찰청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서 조난 선박으로부터의 피해자 위치, 선명, 승선원 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했어야 했는데 동의하는지 그렇다면 그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
- ▶ 증인은 당시 세월호가 어떤 상황에 빠져있고 구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고 그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대목이며 상황파악을 안했기에 구조를 위한 지시가 “우연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해봐” 였으며 수난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통제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답변을 원하지 않음
-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예정한 훈련에 대해 기본 계획, 집행계획을 2012년 2014년에 세우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는 결국 법에 규정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질문하고 결국 2013년에 훈련이 0회 했다는 것을 확인받음

• 김문홍 주요 답변

- ▶ 본인이 처한 정황만 계속 얘기함

○ 권영빈 위원 발언 :

- 길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호중 위원을 물어보는 것임

권영빈 위원이 이호중 위원과 김문홍간의 중재를 하고 있음

- ▶ 그렇게 큰 배가 쉽게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답하며 이호중 위원에게 실망했다고 말함

이호중 위원에게 불경한 언사를 발언해서 김문홍은 주의 받음

- ▶ 결국 출동해서 가는 시간 동안 구조세력을 끌어 모을 생각만 했음
- ▶ 동의하며 상황실에 그 의무가 있고 상황실에서 안했을 때 본인이 교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첫날 시인했다고 말함
- ▶ 본인의 잘못에 대해 항변하려고 하나 답변을 거부당함
- ▶ 2013년에 목포서장이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 모름

• 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에 대한 주요 질문 내용

- ▶ 구조활동에 대한 국제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대형해선사고매뉴얼이며 이것은 조직체계의 매뉴얼이며 우리나라도 그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해경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따로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훈련은 했는지에 대해 질문
- ▶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예정한 훈련에 대해 기본 계획, 집행계획을 2012년 2014년에 세우지 않았고 감사원에서는 결국 법에 규정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 질문

• 이춘재 주요 답변

- ▶ 소형 선박 구조에 대한 매뉴얼 얘기를 함
- ▶ 결국 세월호 같은 유형에 대한 매뉴얼이 없음
- ▶ 수색 구조 훈련이 포함된 유사 훈련은 했는데 법에 규정된 훈련을 하지 않았음

○ 이호중 위원 발언 :

- 청문회 3일간의 느낌을 정리하겠음

무선 마이크 받음

- 3명의 해경 증인이 베테랑인 줄 알았는데 정작 필요한 구조 세력은 투입이 안됨
- 해경은 법에 규정된 훈련 1회도 실시하지 않았음
- 자신의 책임을 하급자 123정 정장, 선장에게 떠넘기는 모습만 보여서 비겁하다고 여겨짐
- 피고 김경일이 받았던 항소심 판결문은 증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함

가족들 박수

○ 이석태 위원장 발언 :

- 3일 간의 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방청석 가족들 마지막 두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림

○ 박종대 발언 :

-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수현이 아빠 박종대임
-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사관들이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증인들의 인내심에도 찬사를 보냄
- 본인은 진상규명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았음
- 본인의 결론으로는 해경 증인들은 승객이 아니라 선원들을 구하러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로는 해경 수뇌부와 상황실에 대한 기록에 있음

해경 구조조치 현황 PPT자료 제시

- 해경 수뇌부와 상황실은 참사 당시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어야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으며 당신들은 영웅이 되었을 것임
- 목포서 상황실과 진도 VTS는 VHF를 통해서 세월호와 교신을 했어야 했고 여의치 않으면 유선으로라도 교실했어야 하며 출동 중인 123정, 헬기, 3009함을 통해서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했어야 하며 신속하게 세월호 상황을 파악해서 승객을 구조했어야 함

- 그리고 TRS 통신을 경청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으로 구조 조치를 했어야 함
- 침몰한 후에는 선내에 갇힌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해경 증인들은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고 책임만 떠넘기고 있음
- 해경 증인들에게 당부하는데 앞으로 있을 2차 청문회에 올 때는 참사 당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명백히 따져서 왔으면 좋겠음
- 특히 김경일 증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 값을 치르는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위증을 하고 있음

김경일 정장의 통화내용 파일 제시

- 당시 구조세력은 13명이 타고 있는 123정과 헬기 3대가 전부였고 김경일과 123정 승조원 박상욱, 이형래는 승객들을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 데이터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현재까지 잘 빠져나갔지만 이 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무죄를 장담하지 말 것을 경고함
- 동영상도 상영하려 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지만 박상욱 증인이 모든 사람이 다 퇴선을 한 상태의 조타실에 진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시작부터 선원만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음
- 특별조사위원회에 가족들을 위해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기를 요청함

○ 유경근 발언 :

- 사진을 보여주기를 바람 (사진 PDF파일 열람)
-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예진이가 엄마와 나는 대화인데 9시 44분부터 54분까지 예진이가 3번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의 답은 없었는데 엄마는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음 예진이는 그 때 엄마를 찾았음
- 첫 번째 오늘 청문회를 진행해주시는 특조위에 바라는 상황을 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진행된 내용 중에 반드시 우리가 측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세 번째 마지막 3일 간 청문회를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본 바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할 것임
- 다음 청문회 때는 각 증인 파트별로 퇴장하기 전에 증인들에게 추가 질문을 가족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며 다음 청문회 때는 청문회장 바로 옆에 대학병원응급

실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무실을 준비해서 아프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리를 빠져나갈 수 없게 조치해주길 바람

- 증인에게 본인이 답할 문제가 아니라서 이상한 답변 안 나오게 주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음

- 전반적으로 청문회의 진행은 좋은 진행이었지만 중간에 실망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 질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가 대표적이며 대답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어지는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음

- 가족을 경악하게 했던 박상욱 증인의 “애들이 철이 없어서 못 빠져나왔다” 는 말에서 알 수있듯이 이것이 해경이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며 지휘관들은 자신이 할 것을 다했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도 지적해야 함

- 다른 하나의 조사는 미군 등 외부 구조세력의 도움을 요청해놓고 청문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았으니 이 부분 조사해서 밝혀주시길 바람

- 높으신 고위 공직자가 여러 번 미안함을 표현해줬는데 개인적인 미안함인지 공적인 위치에서의 책임감인지 모르겠는 이유는 본인들의 부하인 김경일은 혼자 3년 받고 복역 중인데 같이 책임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지 물어봤어야 했다고 생각함

-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특조위에 이헌 부위원장이 기자들과 특조위가 다음번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도 부르려고 할 것 같으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으며 국회의원이 인정해서 만든 특별법인데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고 정부 책임으로 몰아간다는 표현을 쓰면서 밖에서 방해할 하는 행태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을 내려주기를 바람

- 제 1차 청문회의 의미는 진상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고 진상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상조사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싶음

- 이번 청문회 논란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생방송은커녕 사후 방송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진상 조사해야 하고 왜 진상 조사해야 하는지, 진상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음

- 단 한계도 있었는데 첫 번째, 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라는 것이며 출석한 대부분의 증인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깔보는 근거가 됨 이 때문에 일찍이 수사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한계가 여기서 드러남

-두 번째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것인데 이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새기고 진상규명 활동하기를 바람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는 고소 고발 또는 특검 등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과정을 통해서 이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고소 고발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도 요청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경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양심에 따른 증언을 호소함

- 결국 이 나라는 컨트롤타워도 없었고 지휘체계도 없었고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였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임무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람

박수갈채

○ 이석태 위원장 발언 :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청문회를 개최했고 29명의 증인을 불러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청문회를 진행하여 해상 사고일 수도 있었던 사고를 대참사로 이어진 원인을 확인하고자 했음

-우리는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했고 진술의 모순과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밝히지는 못했음

-진실을 밝히는 것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3일 동안 참여해 주신 방청객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함

폐회 22시 42분